朝鮮日報

七日夕刊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發行所 朝鮮日報社

時評

流行의 議會騷動

英吉利의 大憲章이나 佛蘭西의 人權宣言을 例證으로 하지아니할지라도 現下의 議會가 第三階級인 商工團의 階級的 利益을 代表하는 歷史的 政治方式인 것은 識者의 周知하는 事實이다 議會의 所有를 潤澤하는 不幸한 落伍된 國民도 업지 아니하지마는 議會의 品位와 및 그 權威가 漸次 墮落되는 것은 確實히 現代의 特徵이다 頻頻한 各國의 議會騷動 그의 慘酷化는 即 그 墮落을 反證하는 事實이다

×

가장 穩健한 紳士風을 자랑하는 英米의 議會에도 때때로 大混亂을 닐으키는 例가 잇고 挽近 獨逸의 議會에도 자못 左右兩派의 騷動을 보는 것은 그 例가 적지 안흐며 伊太利의 議會에는 『마테오티』의 途中虐殺과 가튼 破格의 騷動도 잇섯다 그러나 左黨의 『인터내소날』歌와 右黨의 『마르세유』歌가 交替하야 高唱되는 곳에 佛國의 議會가 연방 議事를 中止할밧게 업는 것은 가장 잘 現下 議會의 地位와 및 그 背後에 展開된 社會相을 表示하는 바이며 그中에도 純然한 第三階級의 集會場인 日本의 議會가 자못 日中行事와 가티 大亂動을 反覆하는 것은 또한 一奇現象이다

依然한 關原戰

佛蘭西의 議會騷動이 階級的 鬪爭을 닐리한 各個의 勢力의 이너 實演한 大野戰을 爲한 相互의 前衛戰이라 하면 日本의 그것은 目下에 勃興하는 新勢力에 對한 舊勢力의 敵前內訌을 意味함이다 그들의 行狀이 자못 縱馬巷戰, 靑落絕蹊하는 感가 잇지마는 그는 마치 家康, 輝政, 三成, 輝元의 徒를 首領으로 正則, 長政, 吉繼, 行長의 徒를 몰어 勞力爭奪의 關原에 戰을 하다가 秀秋, 廣家 等의 無節操한 內應으로 忽地에 束手就縛, 單騎脫走하는 歷史劇을 忠實히 反覆할 일뿐이다

×

中國의 政局이 依然한 列國志이나 三國誌式의 舊態를 벗지 못함이 잇는 것가티 日本의 政爭은 依然한 中仙道上의 關原의 舊役을 再演하는 觀이 잇는 것은 자못 冷眼者의 失笑를 禁치 못하는 바이다

北京의 國民黨

果然 逝去를 傳하는 孫中山은 秘不發喪의 報와 함께 會見者의 談話도 잇거니와 斯人이 이미 政局에 縱橫할 수 업는 것은 事實인 모양이다 그리고 汪兆銘氏를 筆頭로 左傾이 顯著하다 는 國民黨의 政務委員會가 廣東의 一角으로부터 北京에 進出한 것은 留意할 바이다 不平兒 馮玉祥의 國民軍은 그의 實力的 擁護者가 되고 赤露의 使節 『카라한』은 그의 際援者가 되어 不安定한 北京政局을 中心으로 온갓 機會를 엿보고 잇는 것은 또 그의 着眼點이다

×

國民黨은 人民代表의 不參加를 理由로 하야 善後會議를 反對하니 이는 國民軍을 支柱로 하야 그의 黨綱의 下에서 段政府에게 脅威를 나림이다 알지 못게라 段政府와 國民黨은 今後의 關係가 엇더할는지? 吾人은 일즉 『飄黨』의 名目으로 孫派同盟會의 解散을 命하든 袁總統의 舊事를 回憶하매 금자이 一段의 好奇心을 닐으킨다

孫氏逝去는 事實? 張氏使者北京에 急行

(奉天五日發) 孫文氏의 逝去에 就하야는 去二十六日에 旣히 逝去하얏다고도 云하며 或은 아즉 昏睡狀態이라고도 云하야 各種의 傳說이 잇는바 張作霖氏에게는 三日朝 旣히 死去한 報가 잇슴으로 同夜 楊宇霆, 馬軍醫, 荒木顧問의 一行이 北京에 急行한지라 孫文氏의 逝去는 事實이나 孫文氏의 逝去를 秘密에 附하는 이만치 中國時局에는 相當한 波瀾이 잇스리라더라

黎、善後會參加拒絕

(天津三日發) 段執政은 黎元洪氏에게 代表를 派遣하야 善後會議出席을 勸誘하얏스나 黎氏는 同會議에 出席지 아니하고 且代表도 派遣치 아니한다더라

蘇浙問題平和解決 孫、奉兩軍全部撤退

(上海三日發) 蘇浙善後問題解決을 爲하야 三日午前二時 浙江軍務督辦 孫傳芳氏는 杭州로부터 來滬하야 吳光新, 張宗昌 兩氏와 會見하고 平和解決의 議를 交하고 孫氏는 午前五時列車로 杭州로 歸還하얏다 其結果 江南製械局은 四日總商會로 引渡함과 同時에 兵員을 撤廢하는 外에 上海附近의 孫軍全部를 三日以內에 浙江以南으로 撤退하얏고 奉天軍도 崑山以西로 撤退하기로 決定하야 一時的 和平解決을 보게 되얏더라

江南機械局引渡終了 (上海四日發)

當地江南機器局은 中國側商務總會의 手에 引渡하기로 決定하엿섯는데 四日夕 商務總會側의 代表者는 北京으로부터 來滬한 陸軍總長 吳光新氏의 案內로 器械局에 至하야 無事히 引渡를 終了하엿더라

廣東軍總攻擊開始 東江陳軍을 一掃코자

(廣東五日發) 廣東政府는 孫文氏의 病狀이 尋常치 안흠을 알고 此際에 東江陳軍을 一掃하야 民黨의 地位를 固케하라고 最終的 總攻擊을 하기로 決定하고 이미 粵軍, 雲南軍, 廣西軍 等은 各方面에 分하야 詐裂하야 四日 來黃門, 石龍 等 各方面에 戰端을 見하엿다 東路討伐軍總司令 許崇智氏는 二週間以內에 惠州를 陷落하겟다 豪語하고 同軍의 裝甲車及 『탕크』隊는 露西亞人 操縱下에 出動하엿더라

『反節은 愛國精神에서 日本의 干涉을 防함이다』 馮玉祥對某外人陳述

(北京五日發) 當地英字新聞의 發表에 依하면 馮玉祥氏는 最近 某外人에 對하야 十月二十三日의 『쿠데타』는 滿洲가 日本의 支配에 歸함을 防키爲한 愛國的 行動에 出한 것이다 若其際에 吳佩孚가 兵을 滿洲로 進하면 日本은 반드시 東三省에 兵을 動하야 同地方에 軍事的 干涉을 하얏스리라 하얏더라

海、莫直通列車 開通問題具體化

海蔘威莫斯科間旅客直通列車開通問題에 關한 中東理事會의 審議는 殆히 終了되얏는데 理事會審査의 結果 莫斯科와의 直通聯絡을 維持키 爲하야는 常時運轉旅客列車 四外에 豫備列車一과 合五列車를 編成할 豫定이며 哈市莫斯科間 列車運轉里程은 七千四百露里로 前記五列車의 全線에 亘한 維持費는 年額四十一萬八千四百留로 其中中東鐵道의 負擔額은 八萬二千八百留이며 直通列車運轉에 依하야 東鐵이 受할 料金은 二十五萬留餘豫定이라더라

極東鐵道政策 一大活躍期待

勞農政府는 努力節約의 目的으로 外勞農極東의 諸鐵道를 大洋黑龍鐵道라 稱하는 一鐵道로 合倂統一하야 其中央管理局을 哈府에 置하기로 決議하엿다고 하는데 『헬네푸젠스크』는 西伯利亞鐵道와 極東鐵道와의 境界驛이 되리라더라

波蘭의 陰謀企圖 『가스비아』人을 煽動하야

(나원六日發) 波蘭은 『단지쓰히』自由市에 在住한 『가스비아』人을 煽動하야 『단지쓰히』自由市附近의 郡部에 企圖하야 活動을 繼續中인 『가스비아』種族은 總數十七萬이나 되는지라 此에 對하야 波蘭은 武器彈藥을 分配하고 十八歲부터 四十五歲까지의 男子를 召集하야 軍事敎練을 行하는 中이라 此等村落과 波蘭首相 『월소』間의 交通을 非常히 頻繁함을 極한 中이다 此容易치 안흔 事態에 三十五萬의 『단지쓰히』自由市民은 非常히 悶着中이더라

米國도 近近露國承認 지노베에프氏의 指摘

(런닌그라드三日發) 第三『인터나소날』首領 『지노베에프』氏는 米國도 未久에 勞農露國을 承認하리라 說하야 米國도 直接으로 接觸을 保全함을 見하고 此를 冷靜히 看過함은 不能하리라고 指摘하야다 又佛國은 法紙幣로 露國의 債務를 五分之四로 減할 意向이다 然而 露國은 佛國의 債務를 支拂할 意志는 업다고 말하엿다

佛國保障 協定進展指摘

(巴里五日發) 駐佛英國大使 『쿠소』公은 英國政府의 意思를 그대로 說吐하는 듯한 演說에서 佛國保障協定에 就하야 最近에 重要한 發展을 見하게 될 것을 諷刺하고 佛國保證과 明確한 平和에 對한 現在의 適合한 潮流는 滿失함을 許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엿더라

日米獎學資金 一萬三千弗에 達해

(紐育五日發) 日米獎學基金은 一萬三千弗에 達하엿다 其中 在『코름비아』大學日本人學生 醵出分 三千弗及 在紐育日本人居留民 醵出分 一千弗이 잇는데 該計劃의 目的은 在米國日本人優等學生及 在日本米國人優等學生에 獎學金을 與함인데 基本會計가 一萬五千弗에 達하는 대로 第一回獎學金分...

巴爾幹諸國의 饑饉 小麥供給이 全部缺乏

(維也納五日發) 『발칸』諸國을 通하야 一般으로 小麥의 供給이 缺乏되야 勃牙利一部分에서는 中饑饉狀態를 呈한 中인대 此等處置方法에는 緊急救濟處置라 하야 『쌍』의 原料를 買入하는 中이더라

米紙大統領을 非難

(쏠트레이크五日發) 華盛頓各新聞은 米國大統領 『쿨릿지』氏가 氏의 友人을 歐洲를 視察調査키 爲하야 派遣하기로 決意한 것을 非難하얏다 이는 『쿨릿지』氏가 스스로 政府의 外交政策을 指揮하기로 決定한 前提를 보는 所以이더라

『자글파샤』의 落選 總選擧의 選擧代理人에

(카이로四日發) 來三月六日에 行할 總選擧의 選擧代理人選擧는 四日에 行하엿는데 第一回에 發表된 結果에 依하면 『자글파샤』는 僅히 一票의 差로 落選되엿다 然而 選擧代理人의 選擧에 敗하엿다고 그것이 곳 總選擧에 議員에 當選될 妨害가 되지는 안흐리라더라

英米意見依然扞格 精製阿片禁止期間案에 佛代表英意見에 贊成

(제네바四日發) 一名의 委員으로 成立한 第一第二阿片會議의 聯合委員會는 精製阿片을 十五個年以內에 禁止함에 關하야 何時로부터 그 期間을 起算할가함에 對하야 드듸어 意見이 不一致하야 更히 此解決을 協議하기 爲하야 三日, 英、米、佛、日、中 五國會議로써 小委員會를 設하고 右五個國委員은 四日朝에 秘密會議를 開하고 숨길 것 업시 意見을 交換하야 妥協點을 見出하랴고 하엿스나 結局은 其努力도 何等 成案을 得지 못하게 되야 委員會는 그 趣旨를 聯合委員會에 報告하기로 되엿다 右討議中에 日本代表 松村陽太郞氏는 英米兩國代表의 意見의 相異를 調和하라고 努力하엿스나 米國代表는 다맛 三個年의 猶豫를 與하야 即十五個年의 期間을 十八個年으로 함을 承認함에 止하얏다 그리고 英國代表도 何時까지던지 其處地를 固執하얏는데 佛國代表는 英代表의 意見에 贊成하엿다 至今의 形勢로는 米國의 意見에 贊成한 諸中立國은 다 英國說에 傾하는 中이라더라

日本艦隊動靜

(東京電) 二日 『비토리아』 百武練習艦隊司令官이 引率한 淺間, 出雲, 入雲 三艦은 二日 『에프카이몰트』에 到着하얏더라

一八〇〇哩 無着陸飛 佛飛行家成功

(巴里四日發) 佛國飛行家 『아라사르』及 『루、메롤』兩中尉의 搭乘飛行機는 巴里로부터 佛領 『서너칼』島 『다카르』外지 二千八百哩間의 無着陸飛行을 二十九時間을 超過하엿다 此로써 從來의 無着陸飛行記錄을 突破하엿더라

選、被選權 討議未決 本議上程도 遲延

(東京電) 五日의 樞府審査委員會에서는 選擧權被選擧權에 對한 態度는 決定치 못하엿는바 六日에도 오히려 態度를 決定치 못할 時는 七、八日 兩日은 委員會를 休會하고 其間委員이 充分 硏究하야 九日부터 更히 委員會를 續開할 豫定이더라 右와 如히 討議에 意外의 日字를 要한 結果 本會議上程도 十八日外지 遲延함을 未免하엿다 더라서 十一日에 同案을 衆議院에 提出코자 하는 政府의 豫定에 一大齟齬를 生하야 衆議院에 提出함은 아마 二十日頃이 되리라더라

政局前途 橫田逝去와 各方面의 觀察

(東京電) 橫田法相의 逝去에 伴하야 政局이 變化함에 對하야 各方面에서는 左와 如히 觀察中이더라

貴族院改革問題

全혀 微溫的으로 變化할 것이다 그럼으로 政友會內에서도 그 經過를 憂慮하야 橫田氏同樣으로 貴院改革의 熱心論者인 山本悌二郞氏를 推擧하는 者가 漸次增加하게 되는 模樣이다

政本合同問題

此問題는 促進될 것이다 若合同이 如意히 되지 못하면 政友會는 又破裂될 念慮가 잇다 그리고 若山本氏를 推擧하는 態度가 高潮될지라 그리고도 實現되지 못하는 境遇에 政友會의 危機는 一層 濃하게 될 것이다

三派協調

에 就하야는 橫田氏代에 野田氏가 入閣하게 되면 協調는 保全될 터이나 若山本氏가 貴族院改革問題를 提議하고 入閣하든지 又는 官紀肅淸의 際이 高한 小川氏가 入閣하게 되면 協調는 保全치 못할 것이다 一方 加藤首相도 아마 野田氏의 入閣을 懇請하게 될 것이다

또 政友會內部의 後繼者는 小泉策太郞氏로 同氏는 今後에 크게 活躍하리라더라

法相後任 小川氏로 決定

(東京電) 加藤首相、高橋農相、犬養遞相은 五日午後 院內에서 橫田法相逝去에 依한 善後策에 對하야 重要協議한 結果 高橋農相은 事任法相으로 小川平吉氏를 推薦하고 遞相이 此에 贊同하엿슴으로 首相도 別로 異議가 업서서 小川氏가 入閣하기로 決定되고 三派協調도 一層 強固하게 되는 一方에 貴族院改革은 어데까지든지 規定方針에 準하야 遂行할 것을 協議하엿더라

議院法 改正協議

(東京電) 與黨三派는 五日交涉會에서 議院法改正에 對하야 讓渡를 謝行할 것을 相議하엿는데 此는 從來부터 議院法에 幾多의 缺陷이 잇다고 認하엿스며 特히 今期議會의 數回의 混亂狀態에 刺戟되야 又懲罰定量에 就하야도 除名인 極刑의 次의 重刑이 二週間出席停止가 되는 것도 實際運用함에 不法이 잇다고 詰難하는 事實도 잇고 一方으로 相當한 改正을 加하라는 此際에 貴族院의 改革도 行하라는 意圖이 잇으로나 온 것인바 三派는 各各 改制의 調査를 立案하야 三派의 協定案을 作하기로 되엿더라

貴革斷行 協調鞏固其他 三黨首協議內容

(東京電) 加藤、犬養、高橋 三黨首는 五日午後三時부터 院內總理大臣室에서 橫田法相의 逝去에 因한 各般善後處置에 對하야 一時間에 亘하야 協議하엿는데 其內容은 極秘에 附하엿스나 仄聞한건대

一、事任法相銓衡(高橋氏小川氏를 推薦하야 加藤犬養兩氏가 無異한)
二、三派協調를 益益鞏固히 할 事
三、政策遂行 (貴族院改革은 어데외지든지 遂行할) 을 相議하엿다고 傳하는 中이더라

守衛結束 總辭決意

(東京電) 去三日衆議院本會議에서 議員이 議場에서 守衛를 毆打하야 裂傷을 負케하고 職務執行을 妨害한 事件은 五日各派代表와 粕谷議長의 交涉이 得當치 못함에 因함이라 하야 守衛側은 五日夜突然 硬化하야 드되여 總辭職하기로 하고 對抗할 氣勢를 示함에 至하엿다 粕谷議長은 政友本黨의 元田顧問이 提議한 立法府의 出事來를 議外에 暴露하야 司法權의 發動을 促함은 不好하다 何如히 하든지 院內에서 穩便하게 解決하도록 하자는 懇請을 容認하야 五日에 政友의 關崎 憲政의 安達 兩總務를 議長席에 招하야 元田氏로부터 提議를 述하고 守衛편은 아모조록 穩便히 解決하도록 自己가 努力할 터이니 三派는 잘 協議하라고 交涉한 것을 採知한 守衛側은 『吾等을 除外하고 마음대로 決定하는 것은 何等事이냐』라고 揚言하야 議會散會後에 八十餘名 守衛는 秘密會를 開하고 드되어 總辭職하기로 決心하엿다는데 守衛側의 一委員은 말하되 守衛에게 對하야 暴行한 議員에게 對하야 正當한 懲罰을 附與치 안는 不法과 議長의 不誠意를 ... 라고 하더라

懲罰規定改正 近近具體化

(東京電) 衆議院法懲罰規定中 出席停止는 一二週間登院停止인바 與黨三派에서는 그를 一個月乃至二個月의 出席停止를 規定하라는 意見이 잇서 未久에 具體化하리라더라

議場靜肅協議 各派交涉會

(東京電) 五日正午에 各派交涉會를 開하고 『議場靜肅』에 就하야 左와 如히 協議하엿더라

一、發言의 通告其他 要件은 總히 各派院內幹事로부터 幹事官又는 書記官에게 交涉하고 多數登壇하든지 又는 演說者에게 脅迫치 아니할 事
二、議長이 降壇을 命하고 又는 着席을 命할 時는 바로 此에 服從할 事
三、守衛가 議長의 命을 受하야 其職務를 執行할 境遇에 此를 妨害치 아니할 事

高橋兼攝法相 初登廳

(東京電) 五日午前十一時 東宮御所에서 法相兼攝의 命을 拜한 高橋臨時兼任司法大臣은 十一時半 司法省에 登廳하야 政務次官以下 局長을 會議室에 集合하고 法相就任의 總辭를 陳述한 後 直히 議會에 臨하얏더라

貴院本議休會

(東京電) 六日의 貴族院은 本會議를 休하고 午前十時부터 請願委員會를 開하얏더라

衆議院 五日本會議

(東京電) 六日의 衆議院本會議는 午後一時二十分에 開會劈頭에 町野武馬君 議場整理에 就하야 議長에게 注意하매 議長이 此를 諒解한다 하얏다

議場混亂事件

鳩山一郞君(本黨) 三日本會議의 議事取扱에 就하야 議長의 處置를 三質問하매 議長 此를 反駁辯明한 後 三日議場混亂의 際에 守衛의 公務執行을 妨害하엿다 西村副守衛長에게 傷害를 加케 한 吉良元夫, 寺田市正, 原惣兵衛, 中山貞雄, 大石大, 佐藤重遠 等 六君을 懲罰委員에 附託함을 宣告하다 猪野毛君에게 傷害를 加케 한 山口義一, 中野寅吉, 森田茂, 坂井大輔 等 四君을 懲罰委員에 附託할 動議를 提出하야 採決한 結果 起立者가 少數인지라 議長이 反對가 多數인 것을 宣하얏스나 本黨側의 異議로 記名投票에 入하야 九十七票對百三十八票로 淸水君의 動議는 否決되고 日程에 入하야

一、公立學校職員年功加俸國庫補助法中改正法律案을 議題에 供하야 岡田文相의 說明이 잇슨 後委員附托

伊坂秀五郞君(本黨) 發言을 求하야 前記四君의 懲罰을 主張하며

粕谷議長 休憩中에 생긴 일이다 答하다

一、輸出組合法
一、重要輸出品工業組合法에 就하야 高橋農相의 說明이 잇서 自牧山耕藏, 前田房之助 兩君으로부터 質問이 잇슨 後 農相、藏相의 答辯이 잇섯고

金輸出解禁案

前田君 政府는 議會를 解散하얏스며 金輸出에 關하야 輿論의 徹底勞를 敢行할 決心이 無한가

藏相 解禁은 不能하다

吉植庄一郞君 金輸出解禁을 維持한 結果 爲替는 低落, 物價는 騰貴하얏다 하야 政府의 物價政策을 質問하매

藏相 解禁하면 輸入增進은 免치 못한다 하야 一一히 明快하게 抒明하고 尙且二、三의 應答이 잇슨 後 十八名의 委員에게 附托

一、陸軍從業員扶助金特別會計
一、朝鮮醫院及濟生院特別會計法中改正
一、大學特別會計法中改正
... 計法廢止

等四案을 一括上程하야 可決確定 後四時二十五分 秘密會에 入하야 六時二十分公開, 議長은 秘密會에서 原、牧山兩君을 議院法第九十六條第一項三號에 依하야 出席停止十四日間으로 決定을 宣하고 午後六時十五分散會하얏더라

齋藤總督轉任은 傳說에 不過? 本月末에 歸任한다고

(東京電) 齋藤總督은 入京以來 重要政務에 就하야 各方面으로 折衝中인데 諸般의 用務가 大略解決되엿슴으로 本年末歸任할 터이며 尙且屢屢히 傳說되는 轉任은 朝鮮統治事情에 鑑하야 一傳說로 消滅되고 마럿더라

島田領事歸國 協定細目協議次

(北京五日發) 日露會議의 委員으로 專히 通譯의 任務에 當한 島田領事는 今後에 細目協定締結에 關하야 四日夜 北京을 떠나 歸國의 途에 就하엿더라

郵便恢復은 普通郵便뿐 爲替等은 他日에

(東京電) 日露國交가 回復되엇슴으로 芳澤公使를 通하야 日本遞信省에 郵便回復의 希望을 申請하여 왓슴으로 日本도 깃버하야 此에 應하게 되고 回答하야 畢竟 兩國間의 郵便은 昔日과 如히 恢復하게 되엇다 然而 右는 普通郵便이오 其他 爲替小包 等 特殊物은 後日에 商議를 開하고 決定할 터이라더라

侈品輸入 比前年九割減

客年十二月中

客年十二月中 奢侈品의 輸入額은 僅히 四萬六千十四圓으로 前年同期의 同種物品輸入額에 比하야 三十五萬一千七百餘圓 即 九割의 激減인바 輸入額의 如此히 減少된 것은 入荷期에 虧한 效果로써 一萬四千六百餘圓을 算하나 前年同期에 比하면 年新에 達치 못하며 前年同期 二十七萬餘圓을 計上하던 絹織物은 本月은 僅히 六千五百餘圓에 不過하얏더라

朝鮮內의 露國國有財産 一時總督府가 管理

勞農露國領事館의 設置할 個所에 就하야는 아즉 總督府外事課에서도 判明치 못한 바인대 帝政時代의 領事館所在地中 京城, 釜山, 淸津 等은 彼此國際上의 要點임으로 當然繼續되리라 推察되나 最近 駐日露國大使로부터 日本政府에 對하야 國有財産은 一時日本政府에 管理를 委囑하고 然後에 勞農政府에 引渡할 處理를 就하야 外務省에 傳達하야 總督府에는 此에 對하야 管理를 依賴하얏다 總督府에서는 『헤포토라』領事는 總督府에 示達하얏슴으로 京城에서도 此의 議가 업다는 旨의 回答을 得하엿슴으로 朝鮮에 잇는 舊露國國有財産은 總督府에 管理하기로 되얏다 그런데 舊露國國有財産이라 稱할 것은 京城, 淸津, 馬山等地의 土地及建物, 仁川, 鎭南浦, 木浦, 釜山等地의 土地로 時價로 하면 相當한 價格에 達하리라 하며 又最近까지 領事가 駐在하엿던 곳은

一、京城 『헤포토라』氏는 近近瑞西에 向할 豫定
二、淸津、『토로이츠키』氏는 昨年一月三十日閉鎖
三、城津、元山 兩館을 兼하얏던 『크리스챤、세리스』氏는 十二年十月十四日에 閉鎖하고 城津에 居住하는 中
四、釜山、『스코도로모푸』氏는 十二年十月에 閉鎖하고 神戶領事館으로 撤退

鐵筆寫眞

赤露의 大赦‖ 放免되는 白黨‖

投稿歡迎

直營後 三線聯絡問題 鐵道部當局談

大正十三年度부터 十四年에 亘하야 朝鮮의 鐵道事業으로 最히 重要한 問題는 國有鐵道經營法의 還元이니 即從來 滿鐵로 하야금 經營식히던 朝鮮鐵道를 來四月一日로부터 直營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直營後의 朝鮮滿洲聯絡並聯絡物 等에 關하야 種種變遷하는 者가 잇는 模樣인데 右에 關하야 鐵道部當局者는 左와 如히 語하더라

直營後 安東서의 兩者聯絡協調에 就하야는 鐵道相互間即內部的 關係에서 種種의 協定及運賃料金計算等의 問題가 잇스나 外部即直通列車의 運轉旅客貨物의 待遇等에는 何等 影響이 업다 又는 先年과 如히 安東經由와 大連經由의 間에

貨物吸收 競爭이 再現하리라고 하는 者가 잇스나 今後는 如斯한 問題는 發生치 안흘 줄로 思하나니 即今日에 잇서서는 安東經由 日滿貿易貨物과 大連經由 日滿貿易貨物과의 間에는 自然의 分野가 形成되여 잇다 三線聯絡運賃이 先年과 大差가 업다 하더라도 鐵道側은 七百哩나 잇슴으로 如何히 國境三分一減稅特典이 잇기로 船舶運賃이 低落한 今日에 잇서서는 到底히 問題가 아니다 安東經由는 當主로 小貨物인데 問題視되는 것은 綿絲布類이며 此亦一年에 僅히 二萬噸內外에 不過하다 大連港의 貿易貨物은 近年顯著히 增加되야 一年五百萬噸에 達하야 **朝鮮各港** 全部의 總移入貨物總量과 匹敵한 優勢를 示하엿는 故로 五萬乃至十萬의 貨物이 朝鮮을 通過한다 하더라도 對岸의 火災觀望만한 程度의 一大經濟的 恐慌을 來하얏다 先年에 非常히 三線聯絡을 恐怖하던 大連港의 識者도 過去數年間의 趨勢에 鑑하야 今日은 悲觀이 無하다고 安心하는 터인즉 一般이 憂慮할과 如한 事는 無하다고 하는 것이 可할가 한다

旱救水利事業 二月末外지에 決定 池田技師談

旱害救濟水利事業은 旣히 大體의 調査는 終了되엿고 各團體로부터의 申請에 對하야 總督府가 認可를 하면 補助金도 交付하게 되엿는데 補助額은 本年度 四十萬圓 來年度 八十萬圓으로 二月末外지에는 工事費를 收集하야 三月中에는 工事에 着手하게 되엿다는데 場所는 左와 如하더라

總督府直接의 分

道別	組合	面積
忠南	牙山	一、五〇〇町
慶北	慶山	一、四〇〇
	安東	一、四〇〇
全南	潭陽	二、〇〇〇
	光州	二、〇〇〇

道로부터 申請한 分

道別	組合	面積
忠南	成歡	二、二〇〇
全北	赤城	一、五〇〇
	全州	二、三〇〇
全南	黃龍	一、三〇〇
	和順	三、〇〇〇
	平洞	三、〇〇〇
慶北	枝谷	三〇〇
	若木	一三〇
慶北	沙伐	四六〇
	鬼安	五〇〇

東津江 一萬四千町步의 水利事業은 其後有望하게 成立될 줄로 豫測되더라

露鐵連絡車票發賣

二月一日부터 海蔘威莫斯科間의 鐵道乘車料金은 從來와 如히 『웰후네푸켄스크』에서 中斷되지 안코 直通票를 販賣하게 되엿다 그런데 三等料金은 左와 如하더라

海蔘莫市間	五四留二〇
武市莫市間	四六、四〇
知多莫市間	三六、六〇
『웰후네』莫市間	三三、四〇
哈府莫市間	五〇、〇〇

畜産大會開催 朝鮮에서도 出席

來三月二十五日부터 四月四日外지 東京에서 開催하는 中央畜産會主催 第九回日本全國畜産大會에 朝鮮으로부터도 關係當局者의 出席하도록 勸誘가 잇는 故로 總督府農務課는 各道에 此旨를 通達하엿다 하며 何如히 出席者에게는 汽車汽船等의 割引을 할 터이라더라

◎咸南線促成委員入城 朝鐵咸南線 五老、上通間 八哩強 大正十四年度敷設에 關하야 地方民은 期成同盟會를 組織하고 此의 速成에 努力中인데 七日朝에 委員이 入京하야 鮮鐵重役과 會見하리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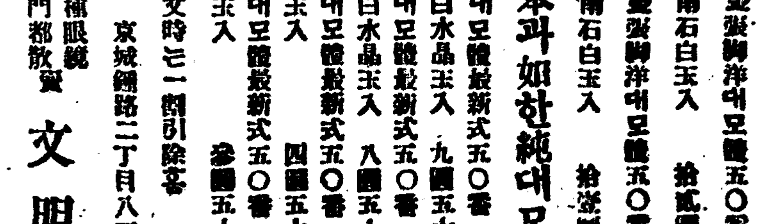
人事消息

▲李軫鎬氏(學務局長) 二月六日朝京城驛發로 釜山、東京、大阪及岡山에 出張
▲和田一郞氏(商銀頭取) 感冒로 在床中
▲金俊淵氏 六日午前釜山着 八日夜入京豫定

八面鋒

○ 土耳其에서、希臘敎의 大敎司를 逐出한 일로、希土間에 戰端이、멀리라한다、愛의 宗敎가、戰爭의 原因되야、慘禍를 惹起함이、古來幾回런고
○ 人間의 社會로부터、偏見을 除去하라!
○ 米國의、國際法廷參加도、차차 事實化될듯하다、그러타면 國際法廷도、曾이될모양인가

◎朝鮮慶州南石玉大特價販賣!!



二十金張鍍洋대모鏡五〇番 慶州南石白玉入 拾貳圓
十八金張鍍洋대모鏡五〇番 慶州南石白玉入 拾參圓
上記圖本과 如한 純대모鏡部
米國製純대모鏡最新式五〇番 蘇州天然白水晶玉入 九圓五十錢
上海製純대모鏡最新式五〇番 蘇州天然白水晶玉入 八圓五十錢
米國製純대모鏡最新式五〇番 朝鮮人造玉入 四圓五十錢
上海製純대모鏡最新式五〇番 朝鮮人造玉入 參圓五十錢
先金注文時는 一割引除함
京城鐘路二丁目八三番地
各種眼鏡 專門都散賣 文明堂

益益有望 萬病快治 新職業
最新式電氣及酸精療法을 鮮漢文으로 實地敎授하야 醫師同樣收入多大自由開業케 하는바 各地開業成功得業士가 多數續出되오니 男女老少勿論하고 醫業에 有志人士及其他虛荒職業에 見欺失敗無業人은 至急一生安全不敗의 實學實務를 來學得業爲一層利한 出張所長사지 無料認許함
湖南線江景中町八十二番地
東京電氣療法硏究所朝鮮總支部

新少年 二月號
京城嘉會洞二三番地 振替京城一二八二二
新少年社
定價十五錢(要先金) 支分社募集

祛痰止咳散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人士여 이 藥할 것 업시 곳!! 此祛痰止咳散을 服用하시오
本劑가 世上에 發明된지 九個星霜에 各處患者에게 神効하다고 本堂에 보내온바 感謝狀이 積如丘山이오며 이 藥을 服用하신 분으로서 기침을 노치 아니하신 분이 업사오니 꼭 한번 試驗하신 後 이 藥의 靈効를 判斷하시옵소서
主治効能
男女老幼、咳嗽痰喘、稠粘咯血、神經喘息、氣逆不眠、痰一不出、咽喉疼痛等에 神効함
定價
一週分 一匣 金壹圓也
三匣以上注文에는 送料를 特히 除減함내다
京城太平通二丁目三〇五番地
製造本舖 藥種貿易賣藥製造業 慈善堂藥房本店 主 金鎰周
振替京城一七九〇七番

雙胎産母의餓死

산후에먹을것이업서서 삼모자가긔한에죽어! 아비는간곳조차모르고 遺子三人은將奈何?

강화군 양도면건평리(江華郡良道面乾平里) 남궁경(南宮敬)의 처리씨(李氏)(二四)는일월이십일에 쌍태를 낫는데원래그 남편되는 남궁경은 난봉으로떠돌두 도모지 가사를 불고함으로열두살먹은 어린아들을 다리고가마니나 재리를짜서 근근히그날그날을사라가는 중에권긔와 가티먹을것도업서 결국 갓난어린애와가티 굴머죽고 마랏다는데 그집을 방문한즉 그아비는 어데가고업는데 열두살 여덟살 여섯살된 불상한 삼형데는언제나불을 때엿는지 어름보다도 더찬방안에 웅그리고 안진것은 차마눈으로볼수업는바 『너의어머니는 엇지하야 도라가시엇느냐』하고무른즉 어린세형데는 말만하는데 이날도 이미해가다갓스나 그때까지 조반도못먹엇다하니 그들의권도가 엇더케될지 그참상은 이루긔록할수도 업더라(강화)

兩次로創立總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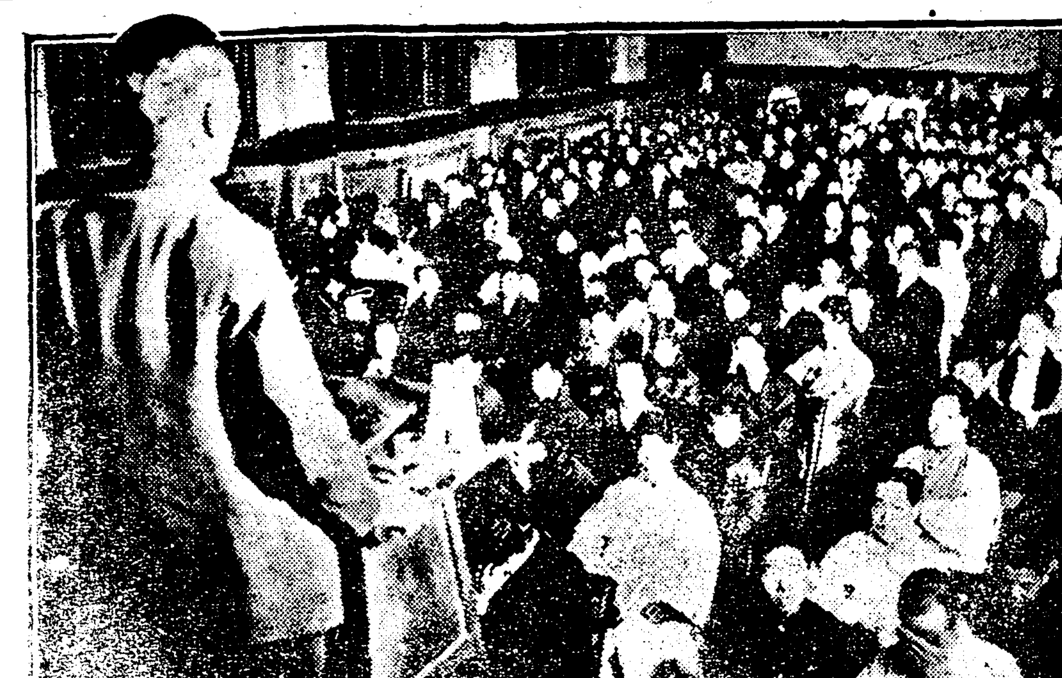
새로되는면차승무원구락부

오래동안 쇄려오든 경성뎐긔회사뎐차과 승무원대회사간의 쟁의는 긔보한바와가티 승무원대표교섭위원이 일부를 양보한결과결말이나고뒤를이어승무원일동의 단결을 도모키위하야승무원구락부를 조직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간선임되얏든 열사람의 규측제뎡위원간에서 모든규측이 전부청안되얏슴으로륙일하오다섯시 열두시 두차례의 창립총회를 뎐차과에서열고완전한조직을할터인데이에대하야 가능동대문서장은 륙일오전에 전중원회간부와 구락부규측제뎡위원측간부를불러일장훈유가잇섯다더라

重要條件

단독처결로 승무원간에불평

이번교섭 조목중의 가장중요한 일조삼조를 승무원들에게 다시 한마듸 의론도업시 교섭위원이 양보를한것은 도뎌히 용인할수업는일이라고 일부 승무원간에는불평이 놉하장차 그결과가엇지될지 당국자는크게 주목중이라더라



◇붓대신에혀로‖ 오일밤신문강연‖

五月青年 改名擴張

『평양청년동맹』 새일홈으로새활동

평양에잇는 사상단톄의 하나인오월청년회(五月青年會)에서는지난이일하오팔시반평양로농련합회(平壤勞農聯合會)안에림시총회를 열고 오월청년회라는회의일홈을 평양청년동맹(平壤青年同盟)으로고칠일 회원의년령(年齡)을 새로제한할일 다른디방청년단톄의회원은 동맹에가입을 허치안는일과 밋관서청년 대회의발긔단톄가 될것과 아울러관서로농대회를호원활협동의사항을 정의한후 위원구인을 선거하엿다는데위원의씨명과 금번개정된 동회의선언과 강령은 다음과갓다더라

◇綱領

一、本同盟은大衆本位인社會의實現을期함

一、本同盟은青年階級的意識을促進하야 實戰結合을圖함

一、本同盟은大衆의利益을爲하야積極的으로努力함

◇委員氏名

▲金泰鉉▲金鳳鉉▲安鵬燮▲朴用煥▲陳宗建▲崔孝剛▲康泰油▲崔一洙▲陳東燮(평양)

明太不漁와 洪原酒商困境

시세도업는데다가 군령에서까지압박

함남홍원(咸南洪原)군은 명태의 소산디로서 그명태의소출로 일반이 다대한자금을 드리는터인데 금년은 례년과달라서농가에서 산출되던 대두(大豆)가잘못되고 따라서금년의 융통이곤난한데인데 더욱히 매년다수히 수출되던 명태도 례년의반수도 못되엿슴으로 금권의 융통이 극히곤난

극히곤난

한을따라서주조업자들은 명태어업시기부터 대부분의 외상으로 명태산디를 대상으로 소매하여가며 명태어업을 마치는때를 기다렷던바밋고밋든 명태어업이 령성하야외상갑을 잘밧지도못하고 또곳내어야할 주세(酒稅)에도 곤난이심한데 군당국에서는 각각하든 주조업자들의 자본주들은 일부터 회사로하라함으로 이말을 더구나 반금(返金) 독촉(督促)이 심하야 읍내각주조업자들은

선후책을

강구하고저지난달이십팔일에 모처에 회집하고 군당국에협의하야 각각주조업을하여 오던대로 일년동안만 연긔하여 달라고하자 하엿스며 군당국에서 극단으로 불응하면 도당국에까지라도 협의하야 보자고 결의하고 지난사일에는읍내주조업자 김봉익(金鳳翼)씨외몃사람은 군당국에 들어가서군수리선호(李瑄鎬)씨와평뎐(平田) 세무주임을면회하고주조업자들의 곤난과 선후책을강구하여달라하엿더니 역시 부당국도당국또군당국의 방침이니 무엇이니하며 일년동안이나 연긔할수업다함으로

주조업자

동은자긔네들의권도가 극난함을 생각하야연구하여주기를 력설하엿지만 군당국에서도 이사정을 종생각하엿는지 아모케라도 될수잇는대로조호방법을 연구하야 그권도를어렵지안토록 하여주겟다 하야주조업자들은 일시 안심되는모양이나 만일일년동안은 연긔가아니되면 큰곤난을 면치못하리라더라(홍원)

衡平社活動으로

충남관내의 소고기갑통일

조선형평사 중앙 총본부에서는 도수장세금과 건피장세금이 조선각도각군각면에서 다각기 평균하게밧지 아니함에따러소고기갑도 역시경찰서에서 무리한갑을뎡하야 준으로형평사원 에게 막대한손해가잇슴으로이를해결할 선후방침을 강구하야 오든중 본부상무위원 장지필씨가 충청남도에 출장하야 고교내무부장 (古橋內務部長)을면회하고곽석에서다음조건을해결하게된바목일에 열리는 충청남도경찰서장 회의에 통과케되리라더라

一、牛價格이 四五十圓에 十百卅圓料金에도三四十錢式바드는것

一、屠牛料金을不公平하게月給制로指定하는것

一、屠牛場에서牛皮를指定하는것

一、屠牛料金이一定치안은것

衡平社看板을

엇던자가떼여가

시내관렬동(貫鐵洞)일백사십사번디형평사중앙총본부 (衡平社中央總本部)의간판을 륙일아츰에엇더한자가 떼어갓다는데필경 반대자편의소위이라하야피해자는소관종로서에고발하얏다더라

醉巡査의夜半暴行

순천의영학교녀교사에게 학교당국은질문서지햇다

평안도순천(平南順川)경찰서원의관권남용(官權濫用)의실례가 최근에 또하나 세상에드러난것이잇다 그는그경찰서원이 술이취하야 량가의부녀자가 잇는방에 무단히 침입하야 폭행까지하려고한 사실이니 그내용이즉순천읍내 의명학교(毅明學校)의녀교사 김옥청(金玉清)이라는 녀자가 다른녀삼녕의 녀자와합의자긔방에서 정초노리로「토람푸」를하고잇든중 엇더한자하나이 무릅으로 방안을 엿봄으로아 난밤중의일이라 수상히녁여누가 남의녀자의방을엿보느냐고소리를질은즉그자는집결에 뛰여다러나서얼마잇다가두루막이위에순사의모자와외투를뒤집어쓰고또 취와서너히는 노름을하엿스니잡어가야겟다고 포승을 쓰내들고잔약한 녀자를협박하다가녀자가 반항치아니함으로 할수업시그대로 도라갓는바 그순사는순라는자인데 그이튿날에 이소식을들은 의명학교당국은 경찰서원의 무리한행동을 질문코저순천경찰서장을 방문하고 전후사실을말한후 그무리함을질책한즉 경찰서장은 도리혀술먹은자라하는 동정이나 잇는듯이 변호하는 등 긔부하 김동갑의 행동을변호하며 순사라고 술먹지말라는법이 어듸잇느냐는 등폭언을 함으로 할수업시 그대로 도라왓스나그 곳일반인사의 경찰비난이 놉다더라

初有의新聞講演

긔사식으로순순한강연에 만장텽중의박수와『야지』

부내 조선인각신문사의 사회부긔자(社會部記者)로조직된텰필구락부(鐵筆俱樂部)의주최로된 신문강연(新聞講演)은예뎡대로 오일밤 일곱시경에 경성종로중앙긔독교 청년회관에서 열리엇섯다사회자와 텰필구락부의 조직을 말한후 곳신문강연으로 드러가서 본사의민태원(閔泰瑗)씨가 『신문과신문긔자』라는연데로 신문과

신문긔자

에대한여러가지이약이를 풍속덕으로강술한후 동아일보사의 최원순(崔元淳)씨가『신문의 사회덕의의(社會的意義)』라는 연데로 장시간 열변을토하매 회장은 긴장되고 떠러서 텽중의『야지』도 잇섯다 그다음에 본사의리서구(李瑞求)씨가『재료를 엇는것』과 설움』이라는연데로 극히 좌당뎍으로 신문긔자생활의 달고쓴 여러가지내막을 흥미잇게말하고 단을 나려오매 그다음에는매일신보의 홍승구(洪承耈)씨가연단에올러와서 연설을한후 번외로본사의 리석(李奭)씨와 동아일보의 최긍(崔兢)씨가 각각 간단명료하게

텽중동안

연설을한후청중에 무사히페회하엿는데 연사의급소(急所)를 쇠른듯한여러『야지』군들의 『야지』가 잇서 매우일반의 흥미를 쓰을엇다더라

赤壁江岸에一戰

녀장사와일인순사의격투 원인은순사의불공평으로

지난 사일저녁때에황주군(黃州郡) 진안문(鎭安門) 적벽강밧(赤壁江)가 에서는 정복입은일순사(日巡査)와 아조보잘것업시 허름히차린 엇던녀장사(飴商)와 큰싸홈이 이러나서서로차고 따리며 어름판우에서되굴고하야 약한시간동안 이나야단이낫섯고 얼마후에 순사와 녀장사는 서로잘햇다고 주먹질을 해가며 경찰서에간후는엇진가닭인지 녀장사도 무사히노히고 일순사도 양복에몬지를툭툭털며 나왓다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드른면 녀장사림영추(林永秋)는 원래황주뎡거장근변에 조고마한 움막을짓고엿장사하야 지내든 터인데하로는중서(中西)라는일순사가와서 여긔는뎡거장 근변이니풍치(風致)에 관계된다하야 다른곳으로 옴기라고함으로 부득이금융조합창고(金融組合倉庫)엽흐로 옴기엿든바 또몃칠이지난뒤에중서라는순사가와서 역시

일등도로

가이나다른곳으로옴기라고 야단을칠때에림영추는엇지하야 박종만(朴宗萬)이는 뎡거장엽헤서 엿을팔되아모처치가 업스면서 나만여기서지따라와서 쳣화를대이느냐 한즉그사람도곳옴기도록할수업시 진안문밧그로와서 엿을팔게되얏스나 얼마가법도록 박종만에게 대하여는아모말업시 잇슴으로 림영추는 경관의 공평치못한처치에 분개하야마지안는바마츰중서(中西)라는순사가 그앞흘지나 감으로 순사를 불러세인후 말다툼을하든쇠테 서로매질까지하게되여

高潔한志士

친부깁든모씨말

현채씨와 평소친분이깁든 모씨는말하되『그의죽음은너무적막하얏슴니다 그는실로히 쓰러져가는 조선에나타나 비분강개한 지조를품고 여러가지서책을저술하야 어두운구렁에 빠져하는조선민중들의압길을발키며 석어가든뎡도를외로히 꿋꿋히드정렴결백한지사이엇슴니다 일시는 서적저술에서 엇는 인세로생애를부지하야왓스나근래에와서는 실로히 조반석죽도어려웟스며 로쇠한몸이라 근래에는계동자택에들어안저 굴시나 쓰고잇다가 가장조용히 가장적막히이 세상을떠나간것이올시다』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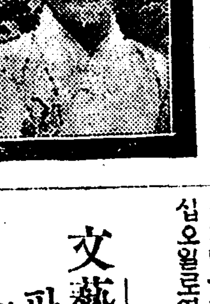
白堂玄采氏長逝

유년필독저자로유명한서가 향년칠십삼세의고결한그생애

유년필독(幼年必讀)의저작자로 서가(書家)로도 유명하는 백당 현채(白堂玄采)(七三)씨는 오일하오두시경에 시내계동(桂洞)일 구십구번디 자택에서 로병으로 이세상을 떠나고마랏다 씨는원죽이 무필에현재가 잇스며필과 만흔시대에나서 조선을 사랑하는마음이 열렬하야 민중을깨우치는 서적을저술하야 번역하야 세상에 발표한것이 만흐며씨가 저술혹은 번역한서적중 중요한것은아래와 갓다더라

△幼年必讀△東國史略△萬國史記△中東戰記△波蘭亡國史△米國獨立史△世界年契△太西新史

등이며 기외의서적을 총계하면 삼백여종에 이른다더라



(사진은‖현채씨)

和順東面火災

초가하호전소

전남화순군(全南和順郡)동면천덕리(東面泉德里)김봉구(金鳳九)는소작농민으로근근히호구를하면서 겨우삼간초옥을 보전하여오던바 불행히 지난이일오전열시경에 그집에불이나서 령렬한 화광이충텬함으로 소할동면경관주재소원전부가출동하야 진화에 노력하는중 방안에잇는 세간을 집어내고자 뛰어드러가 석신부장(石神部長)은그위험한곳을 무릅쓰고 방안으로 드러갓다가모자에 불이부터서 머리가다타 번한 위험을 겪것다하며 집과가산전부를태운김봉구의생활은장차엇지될지 말할수업다는데 전소된 결과세간의 손해는 이십원이며 불난원인은 방금됴사중이라 더라(광주)

僞造貨使用者

종로서에인치

시내서대문뎡(西大門町)이뎡목오십사번디서석윤(徐錫允)(三五)은지난사일에 위조한 오십전짜리은화를 사용하다가 종로서에 인치되얏는데 본인은 자긔도모르고 바든것이라고 주장하나위조한혐의가 잇서서 엄중취됴중이라더라

金祉燮公判

이십오일로연긔

동경이중교사건(二重橋事件)의 김지섭(金祉燮)의 공판은 륙일에개뎡하고자하얏든바돌연히 이십오일로연긔하게되얏다더라 (동경뎐보)

文藝講演開催

파스쿨라주최

경성에잇는 몃사람의 문인(文人)으로조직한파스쿨라(Pascula) 동인의주최로 래팔일하오칠시반에경운동텬도교긔념관에서 문예강연회를개최한다는데연사는다음과가트며 회장을정리하기위하야 입장료십전식을 밧기로하얏다더라

閔牛步 金基鎭 朴懷月 金岸曙 金石松

墓地에兒屍體

타살혐의로됴사중

오일하오여섯시경에 고양군한지면신당리 (高陽郡漢芝面新堂里)공동묘디에 나흔지몃시간되지못한남아의시테를발견하얏는데 타살의혐의가잇다하야 소관동대문서에서는목하엄중됴사중이라더라

拳銃强盜團三名

평양경찰서에서세명을톄포

작년십월경부터 륙혈포를가지고 평양시내를횡행하며시국을 표방하면서 물품과 금전을강탈하든 사명의강도단이잇서 각처에 피해가만흠으로 평양경찰서에서는 각방면으로 범인을엄탐하든중 지난사일밤 시내모처에서 권긔네명중 세명을톄포하엿스나 아직수괴모를 톄포치못하엿슴으로 오일에는 시내에곳곳이 경계망을치고 범인톄포에로력하는바 이자도 곳톄포되리라는데 범죄사실은 아직발표치안음으로 자세히알수업스나 평양부근각군에서 발생한 강도사건도 이자들의 소위인듯하다더라(평양)

水平社員大騷動

사원한명이물에빠진관계로

일본긔옥현 긔옥군중조촌(埼玉縣埼玉郡中條村)에잇는 수평사원(水平社員)길야모(吉野某)외이십여명이 죽창과 목도를가지고 오일하오일곱시경에 부근대리군진촌(大里郡秦村)부락에몰려가서 그부락주민을 몰살을식힌다고 일장야료가나자 부락에서도 삼십여명이 대응하야일대수라장을 이루엇섯는대 이급보를들은 소관경찰서에서는 수십명의 경관이급행하야 진무경계중인대 원인은 길야모라는수평사원이리근천(利根川)나루를건느다가 배에서 떠러진일이잇섯는데 그것을 진촌에잇는사람이길야모를 배정이라고 업슨역여서 떼어미러 떠러진것이라고 보수를하고자 그리된것 이라더라(포화뎐보)

香山慈幼院과 朝鮮學生

열두사람이재학중

북경향산자유원 (北京香山慈幼院)에재학중인김사용(金司鏞) 군은 집안사정으로 일시몰어와 잇는대 동군의전하는바에 의하면 그자유원이란것은년전련진수재 에에 의연금을모집하야 리재민을녀로헤서 그중에서 상베만원 업는아이들을 사면명을 수용하기 위하야 이자유원을 설립하엿스며 떠져서 그학교에서는고아원과가티 생도들의 의복음식까지 대여주는터인데 그후 규모가점점커지되야 지금은 중학이년정도까지 설치하게되엿스며 그중학부에는 조선사람 열두사람도 재학중이바 동원장웅희령(熊希齡)씨를위시하야학감소세훈(蘇世勳)씨는비상한동정과후의를 가지고 대접한다하며 또그네들은 향산한인학우회(香山韓人學友會)를조직하야 서로친밀하게 지내는중이라더라

獨立團二名被殺

평북귀성에세명이나타나 경관대와장시간싸호다가

사일오후열한시경에평안북도귀성군관서면조악동(龜城郡舘西面造岳洞)장긔연(張基淵)의집에세명의 독립단원이 드러와서 현금이십원을 바더가지고 어데로인지 가버렷다는 보도를들은 귀성경찰서원 십일명은 곳그들을추격하야 서로격전한후 약이십분후에 독립단원 두명을죽이고 륙혈포 한자루와 그돈이십원을배앗고 계속하야그들을 추격하는중이라더라

安城强盜二名

톄포되야취됴중

안성군미양면 량변리(安城郡薇陽面陽邊里)에 본적을두고원뎍을 한주소가 업는김모(金某)(三六)와충청북도청주군(忠北淸州郡)에본적을두고역시 일뎡한주소가업는 허모(許某)(二四)등 두명은강도죄로 지난사일 안성경찰서(安城署)에 톄포취됴중이라는데 이제 그내용을 드른즉 그자들은 지난일월삼십일 오전세시경에 안성군 서운면양촌리(瑞雲面陽村里) 최영화(崔榮化)의 취한순교(崔順敎)(四三)가호자자는곳에 몽둥이를 가지고침입하야구타하며 이불로 엄혀놋코 현금 기타의복약 사십원어치를강탈햇도주한사실로 그와가티 톄포취됴중이라더라

本町에또小火

륙일오전네시반경에 시내본뎡(本町)이뎡목사십번디 원태랑(原太郎)의집에서는불이나서집웅이 약간소실된후 곳진화되엿다는데 그원인과손해는됴사중이라고

舊水鐵里火災

아이의작란으로

오일오후륙시십분경에고양군룡강면구수텰리(高陽郡龍江面舊水鐵里)삼십번디 고명원(高明源)의집부엌에서 그의장남유학(有學)(五)이가 석냥을가지고불작란을하다가 거혀두엇던 나무에 불이부튼것을 그어머니가곳 진화하엿는데 손해는 약일원가량이라고

春!春!春!

립춘후첫비!

립춘(立春)이 지내더니 봄소식이 갓가워 오는지 오일밤부터 바람이 졍다워지며날이흐리더니 륙일 오후부터는 구름이 남산북악의 잔설을녹이는 구즌비가 보슬보슬 나리기를시작하얏다 이에대하야 경성측후소원은말하되압흐로는춥다 한드라도섭한치위는다시업슬것이며 여름기압은 남양(南洋)으로가고 흡흔긔압은연해주(沿海州)방면으로몰리어차차봄철을잡아드는긔세가대공에올족이는 터인데 남도디방에는 이미비가 나리는중이라고

『警察署를破壞코자』

두서한장에놀래인경찰 식상우무고로범인톄포

양평군 고읍면옥천리(楊平郡古邑面玉泉里)에원뎍을두고방금시내레지동(禮智洞)삼십팔번디에사는 룡순채(龍順采)(三五)는 무고죄(誣告罪)로얼마전에 서대문서에 검거되여 바륙일오전에 일건서류와 함께경성디방법원 검사국 (檢事局)으로넘어갓다는데 그자세한 내용을 듯건대 전긔룡순채가 작년팔월 십칠일에죽첨뎡이뎡목 금성정미소(金城精米所)에서고용으로잇는원봉룡(元奉龍)(二五)과동사를하기로약속을 하고죽첨뎡 일뎡목리덕중(李德仲)으로부터돈백원을 어더서 자금을대여 소미(小米)장사를하던바 광희뎡(光熙町)사는최순근(崔順根)에게 외상돈팔십원가량을밧지못하게되여 결국상업은 여디업시실패에 도라가게되매 그제야 룡순채는 권원자금으로 내여던돈은 동업으로한것이아니고 원봉룡 에게 대여한것이라고하면서작년십월 에 그대여금청구소송을 경성디 방법원에 데긔하엿던바 동법원 에서는

사실상위

로그사건을각하하게되매룡순채는이에크게분개하야원봉룡을 모해코자지난 달이십삼일에종로서(鍾路署)에 다수의봉룡은 폭란범인의주모자(主謀者)로서 경찰서를 파괴코저한다」는 동의미로 은명투서(隱名投書)를하엿슴으로종로서에서는곳사실됴사에착수하얏는결과 부사실의거짓임이 판명되엿스나 그투서범인은톄포치못하엿든바 지난삼십일에또권긔종로서에온 문구와똑가튼의미의투서가서대문서(西大門署)에도오게되매 동서범계에서곳그

두서범인

수색에로력하야 지난이일에 룡순채를혐의자로검거하야 취됴한결과 사실을 자백한것이라는데동서천엽사법 주임(千葉司法主任)은말하기를 『개인감정으로 남을모해하는자가업는것은아니지마는두번식이나경찰서를 속이려는놈은 도뎌히용서할수가업스며또그놈은언제나미납(未納)으로두서를창으로 우리경찰서에도 돈을권을손해보앗슴니다』 고하면서웃더라

石炭庫에小火

시내경운동에잇는 녀자고등 보통학교부속녀자 보통학교 교사부근석탄창고에서 륙일상오 아홉시경에 불이나서 석탄한삼래가나란것을 발견하야 즉시소기는하얏스나 방화한의심이 잇다하야소관 종로서에서는 목하됴사중이라고

臥龍洞에또小火

륙일오전칠시반경에 시내와룡동(臥龍洞)일백사십이번디김춘자(金春子)의 집에서는불이나서솔입(松葉)약 간이 소실된후곳진화되엿다는데 그원인과 손해는 됴사중이라고

西四軒町小火

사일오후다섯시 삼십분경에 시내서사헌뎡(西四軒町) 칠십일번디 리호관(李浩寬)의처뎐성녀(田姓女)(三)의 집에서는불이나서부억약간이소실된후곳진화되얏 다는데 원인은 아궁지 불을주의치안흔까닭이라고

六歲兒出家

서대문밧죽첨뎡삼뎡목(竹添町三丁目)일 백칠십사번디 리문흥(李文興)의딸원자(元子)(六)는 오일오후 두시경에 우연히집을 떠나가도 라오지아니함으로서대문서에수 색원을 제출하엿다고

空倉庫에屍體

오일오전구시경에 시내서소문뎡(西小門町) 삼십사번디비인창고(空倉庫) 안에서약삼십오세가량 되여보이는 남자의시테를 그리웃 에서 로동하던중국인장극덕(張克德) 이 가발견하얏는데 데림검한결과 타살은아니고 강시인듯하다는바 시테는경성부령에 인도하야매장하엿다고

轢傷한黃永錫

필경사망하엿다

오일오후한시반경에 시내종로네거리에서 경성자동차강습소 자동차와충돌되어 경성병원(京城病院)에 입원치료중이든황영석(黃永錫)(四〇)은 여러가지의유급치료를바덧스나 원악 중한내상(內傷)을바덧슴으로종시회생치못하고 마츰내륙일 오전한시반경에세상을떠낫다더라

兄의放蕩으로 아우自殺

평남중화에서

평남중화군 양정면룡해리(平南中和郡楊井面龍海里)일백사십오번디 홍이택(洪頤澤)(三)은 지난일월이십사일 오후두시 자긔집부엌들보에 목을매고 자살한것을 동서시경에 그와인헤윤성면(尹貞恩)이 발견하고 동리사람이 와함께서 인공호흡까지하엿스나 아모효험이 업섯다는데 죽은원인은 자긔의형되는 홍순택(洪順澤)이가 방탕하야 가산을탕진함으로 세상을비관하야 이놈을술 만히먹고 천귀와가티 자살한것 이라더라(평양)

李氏慰安會

교육계에 십륙년간 근속하다가사임한 리중화(李重華)씨 위안회를 오는 십일일 오후 여섯시 청량사(淸凉寺)에서 연다는데 배재 졸업생들은 다수 참석하기를 바란다하며 회비 일원(당일지참) 발긔인은 『霜光 一九一』리봉순(李鳳舜)씨나 『霜光三九二』리건춘(李建春)씨에게십일일안으로 함이조타라고

종명자

▲강화에서는쌍태나흔어미가산후에어더먹지를못하야, 아이둘과 함의가련히 도세상을떠낫다, 이가큰소식이신문지로인하야 사회에왼하게 될때에도자는 과연어떠한눈갈을 밧게될는지▲『인생은고해』라고 녯날부터 일러왓거니와, 아비는 방랑하야 온데간데를 도모지알수업고, 하늘가티 밋든어미조차 산후에굴머죽엇스니남어잇는어린 삼형데의 권도는누구가 보살펴줄것인가▲ 우리는 이러한소식을들을때마다, 세상에서흔히 말하는 동정이니 자선이니하는생각도 업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간자선이나 동정만으로써, 이와가튼비극을근본뎍으로구제할수가잇슬것인가, 좀더근본뎍의 방침이잇지는아니할가?

運動競技

今年運動界 『씨슨』開幕

쏫피는四月에 蹴球大會를開催

朝鮮體育會主催의第六回全朝鮮蹴球大會는來四月中에열리라는데몃가지의『윈터스폿스』(冬節運動)도이것으로幕을다치고新春『스폿스』의첫幕은이로부터비롯되야열리게되는터임으로一般『펜』의企待가적지안타고

體育委員會 朝鮮體育會에서는同大會準備와其他事項을討議하고저來十日午後七時에公平洞會館에委員會를연다고

全朝鮮卓球 選手權大會

來十五日에擧行

朝鮮卓球協會主催로第二回全朝鮮卓球選手權大會를來十五日午前九時에(場所追後發表)行한다는데參加申請은九日까지明治町二丁目六六番地同會로申請함이조켓다하며參加費는五十錢•學生은三十錢•申請은往復葉書로하라고

早慶蹴球戰

七日早大球場에서

日本早慶『아』式蹴球戰은來七日午後三時半부터早大球場에서行한다는데早慶間아式蹴球의有料競技는처음임으로一般『펜』의人氣가자못만타고(東京發)

崇德中學氷競

平壤私立崇德中學校內氷上競技大會는四日正午부터六勝亭氷上에서十五種의競技를行한바當日은마츰장人날임으로前에도지못하든大盛況을일우웟는데優勝은第三年級에서取하얏다(平壤)

全滿氷競經過

第五回全滿氷上競技大會는一日午前부터奉天에서열인바決勝選手는如下

一萬米長沼(安東) 22分58秒2

▲五百米佐川(旅順) 55秒2▲

女子五百米日置(撫順) 1分25秒3(奉天發)

老少腎氣强壯專門 터ー릭新藥

人生의무엇보다快樂한것이무엇인가

飮食은衣食住가足한以上에는一生一代의快樂함이第一이라此터ー릭新藥은老少腎氣强壯劑로男女諸位의○○밧든國寶藥이온바七十老人일지라도服用一週日內로○○○○○○○○快樂을任意로할것이오靑年諸位는○○을過度히하야精力과元氣를衰한腎虛와不足症神經衰弱을勿論하고服用케되는때如何히衰弱한바百發百中에特效함을保證고本院에서多年實驗試驗한바이오니一次服用하시압 (藥價는必히先金을要함)

藥價 一劑 十圓

京城府樓北洞一一六番地 濟衆院製藥所

第一學年約百名。願書二月二十八日外지 入學試驗三月二日午前九時

生徒募集 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

受驗料三円 一日交付。詳細는同校에照會하시요 (但二錢切手封入할事) 京城府壽松洞

◎當三月四日新映畵出現

大悲劇 장화홍련전 全八卷

悲戀曲 闇의女神 全七卷 十六分社時代ー背島映畵

▲米國유니버ー살會社ー大作品

哀話 森의朝 全五卷

大▲米國유니버ー살會社特作品 松竹 大速力王 全七卷 유나이뎃트社

特 ‖近日公開‖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當籤

一等 朴容觀 价川郡外西面

二等 明容駿 江景黃金町

同 朴允思 厥川郡殷山面

同 □周煌 平原郡漢川面

三等 裵昌輪 永興郡億岐面

同 金濱健 平康郡西面

同 丁奎昇 金泉郡金泉面

同 具鍾會 大邱刑務所

同 金倜伊 眞寶石保公普校

同 沈鍾澤 平康郡西面

同 康德三 平北郡龍岩浦

同 朴品三 全州郡亂田面

同 申品南 淸州郡淸州面

同 李圭玄 大邱府東城町

以上

京城府堅志洞八十의一 安昌社懸賞部 話替口座一三七六〇

特히一言으로告하올것은萬物이價廉하면品劣하고品好하면價高함이理에當然하나本舖는此理를破하고品質의善良과價格의廉價를兼하야特別大割引하오니一次試驗하시옵소서

藥材는飢渴者의食物도아니요奢侈者의外飾品도아니라人의疾病을治療하는것으로生命의至大한關係가有한것을忘却하야서는아니됩니다

乾材買入時勢로貼藥價에計算함

補藥專門公司 京城府授恩洞拾參番地

六品不康公白堂先生玄采氏以宿患이本月五日下午二時別世以玆訃告

桂洞九十九番地自宅

永訣式 二月八日(陰正月十六日)下午十時

發靷 二月九日(陰正月十七日)上午二時

葬地 高陽郡恩平面

返虞 二月九日(陰正月十七日)

親族代表

受學代表

友人總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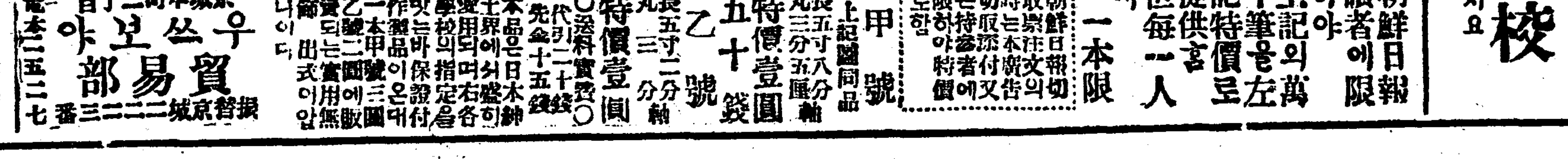
閔衡植 李 柳 徐正屋

朝鮮日報讀者優待

正十四金펜先白金付 에보나이트軸高級品

萬年筆을果然大廉賣

第五回賣出에多數의好評을博하야第六回二千個新柄를提供



甲號 上記圖同品 長五寸八分 丸三分五厘軸 特價壹圓五十錢

乙號 長五寸二分 丸三分軸 特價壹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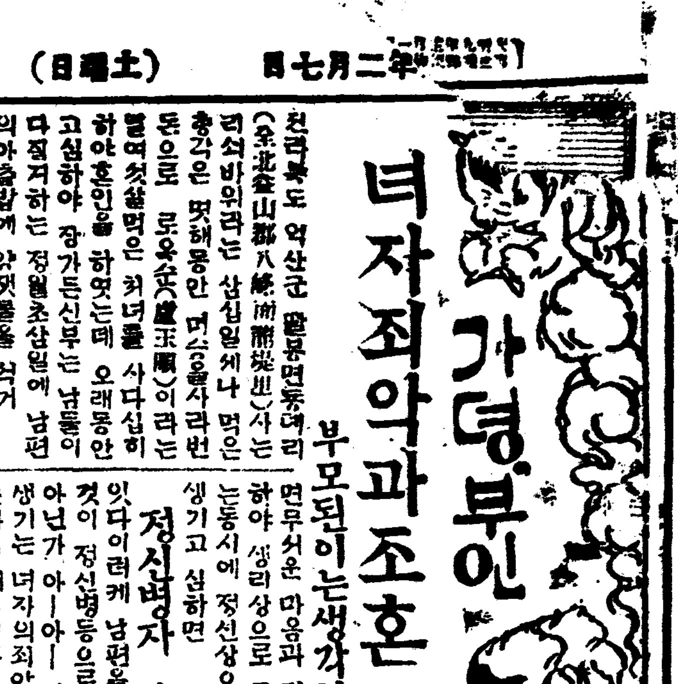
○送料實費○ 代引은十五錢先金

本品은日本紳士界에盛用되며各學校의指定品이오保證付인바乙號는甲號에比하야製品이同一한本品이오니愛用하심을바라나이다

京城本町二丁目 우쓰보야貿易部 振替京城三二二二番 電本二五二七

朝鮮日報讀者에限하야上記와如히萬年筆을特價로提供함 但每一人에一本限

朝鮮日報切取하야注文하는時에는本社廣告를切取하야添付하는者에限하야特價



녀자죄악과조혼

부모된이는생각하라

전라북도 익산군 팔봉면동대리(全北益山郡八峰面東垈里)사는 리씨바위라는 삼십일세나 먹은 총각은 몃해동안 머슴사리번 돈으로 로옥순(盧玉順)이라는 열여섯살먹은 처녀를 사다십히 하야 혼인을 하엿는데 오래동안 고심하야 장가든신부는 남편이 다짐저하는 정월초삼일에 남편의 아츰밥에 양잿물을 석거 먹여죽이려하엿다 한다

먹여죽이 사람으로써 사람을 죽이려한것 — 더욱 십륙세녀자로 일생을 의탁한 남편을 죽이려한것이얼마나 무서운일이냐 그러나이것은그당자가 되여본경험이 업스면도뎌히가비여히비관하지못할일이다 녀자가십륙세에 생리뎍으로 얼마만큼이나 발달될것은 차치하고라도 순실한 초처녀로 예긔하지안흔 심한고통을 당하면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격렬하여질뿐 아니라 또처녀가시집가서 처음으로 남자를대하게되면무서운 마음과 괴로운밤이겹하야 생리상으로 큰변동이생기는동시에 정신상으로도 변동이생기고 심하면

정신병자 가되는일까지 잇다 이러케 남편을 죽이려고한것이 정신병증으로 생긴일이나 아닌가 아—아— 이런사정으로 생기는 녀자의죄악이 얼마나되는가 이때문에혹 남편을죽이려하고남편의집에불을놋는일이얼마나되는가 이런주위의 사정으로죄명을쓰고 붉은옷을입고 감옥생활을하는사람이얼마나되는가 이것은모다 자식을상품가티팔아먹고 어린처녀를 나만흔남자에 시집보내는부모의 죄악이다 이런것을 예방하려면

조혼을폐지할것

청에대한리해를 남녀간에 보급식힐것

혼인을 나히걸맛고 서로눈에맛는사람끼리하게할것

등 몃가지를실행하면 좀나흘가 한다

◇…불혀를토하는녀자연사…(남녀토론회)◇

사람의수명장단 (一)

몃살까지나살수잇는가

사람은몃해나사는가잇던사람은 『인간오십년』 이라고 엇던사람은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 라 하고 엇던사람은 『인생백년산다해도』 라고 합니다 엇던 사람은 이삼십에 죽고 엇던사람은 백살까지살기때문에 평균치면 사십세가량이라하나 이것도 표준는되지못합니다 엇던사람은 동물이사는목수은 그데소의 크고컴은데달려다하야 고양이보다 개가더수를하고 개보다우마가 더수를하고 우마보다 코기리가더수를하니가 사람도 큰사람은오래살고 적은사람은 단명하리라고 합니다그러나 번듯이

그러치도 안습니다거북은적어도 우마의수십배나 더살고사자나락타는키도백장어의삼분의일도살지못한다또엇던사람은동물는그자라는시일의오배는산다고하니 이러케치면 말는큰말이 되러면다섯해가 걸리니가 이십오년은 살터이요 소가큰소가 되려면사년이 걸리니가 이십년은 살터이며 락타는 여덜해에큰락타가 되니가 사십년은살터이며 사람은 이십오세가되면 어른이 된다는말이잇고 혹이십오세가되면 어른이된다는말이잇다 이십세로 치면 백년은사라야 할것이요이십오세로치면 일백이십오세를 사라야할것입니다(계속)

남녀토론 대성황

일등은박희청 이등은한신광

이미보도한바와가티 오일오후일곱시에 텬도교긔념관에서 조선녀자 청년회주최로 신춘남녀대토론회(新春男女大討論會)가 열리엇다 수백명청중의 박수성속에서 그회 회장의 신애벗드녀사의 간단한사회가 잇슨후 『우리사회의최선개척(最先開拓)할바면이 녀자사회냐남자사회냐』 라는문뎨로 쾌활한 연사들의변론이시작되엿다 연사는 가편주병서(朱秉瑞)군、박희청(朴熙淸)군、김청여(金淸與)양、박군、부편헌시파(韓健光)양、방성옥(方成玉)녀사、로순렬(盧順烈)양 인데 그중에 로순렬양은 부득이오는동안 속도이잇섯다 심판은한사정으로 출석지 못하엿고십 로정일(盧正一)김창제(金昶濟)김일선(金一善)씨의 겸의로일등박희청군 이등한신광양삼등김청여군으로 김창제씨가 심판발표를 하엿다 — 여는아홉시이 …폐회하엿다

녀학교의입학소개 (四)

금년에는 오십명을모집하는 진명녀학교

시내진명녀자고등보통학교(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에서는 본과(本科)일학년에 약 오십명을 모집한다는데

자격 은 품행이 단정하고 신톄가건전하며 사상이 건실하고 재학중에 학교를옴기지 아니하며 학비의 곤난이업슬 사람으로

학력 은수업년한륙년의보통학교졸업생이나또는금년삼월 졸업할희망이 확실히잇는자와 년령십이세이상으로 조선어、산술、일어、일본력사、디리、리과를수업한 륙년의보통학교졸업생에게의지하야본교에서 행하는 시험에합격할만한자

서류 는 입학지원자는 본교에서뎡한 입학원서에 호적등본을첨부하야 이월 이십팔일까지 본교에도착케할것이요 원서를데출한사람은시험시행 긔일(삼월일일)까지본교에출두하야수험번호표를바더갈일

준비 시험필자의주의할일

가、시험은삼월이일、삼일、사일오전구시에본교에서 행함

나、수험자는수험표、연필、창칼、고무、점심을가지고 올일

다、수험자는시험당일오전팔시반에 그학교에출두할일

라、입학지원자의수가모집원을 초과하게되면 조선어、산술、일어에서발시험을하고 구두시험과 신톄검사를행함

일학년 입학자의 쳐음드는비용은이러합니다

입학료	교과서대	실습재료	교과서	숙사	합계
三、〇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자녀교육의방법 (一五)

어린아이와동화의관계

八、아이들에동화를 조화한다

아이들이동화(童話)를 조화하는것은 아이들의공상에 가장뎍당한까닭이올시다 동화의 특징은시간이나공간을 초월하야 무는이야기던지 시작할때에는『녜어느곳또한사람이 잇는데』하고어느때어느곳 또한사람의 칭명이나 년령가튼것은 상관치안는것이 올시다 속아이들은 안개속에잠긴불건을보는 것가티희미한 이야기를 조화합니다 그리고그이야기가 말이되거나 안되거나그것은 문데도삼지안슴니다 다만이야기를듯는 동안이 즐거운고로 아이들은 한번한이야기를 되하고되하고 하여도 실혀하지안슴니다 그것은 전에드른이야기를 이저버리고 언제던지 새이야기가자미잇게 생각하는 것은결단코아니올시다 이야기의 내용은잘알어듯던지 못알어듯던지 이야기를 듯는것만으로 만족하여하는것이 올시다『콩쥐팟쥐』 이야기를 할때에도 계모가콩쥐더러『송곳으로 재처내고또부엌하라고하엿는지』하고 무른면아이들은 얼는『맛씨진시두에쁠기려붓고』하고 대답합니다그러면이미그러케다아는이야기가웨또자미가잇느냐하면이야기의내용을아는것보다도듯는순간이즐거운까닭이올시다 다자라가 어렷슬때일을생각하여보아도『콩쥐팟쥐』이야기가튼것은 몃백번 들엇는지알수업슴니다 그러나 소학교에단일때쯤되면 실제의 경험과 충돌이되는것을 깨닷는고로 그러이야기실으로만은 흥미를부치기는 어렵고 …

처지안슴니다 한번한 이야기는다시듯기를 조화하지안코 이야기의내용을 잘밥려고합니다 그때에드른 이야기는 그대로 기억하여두엇다가 차후에도 잘외이게됨니다 그러기때문에 동화가 아이들의교육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을 넷날부터 생각하엿습니다 동화가운데는 아이들을 참혹한 이야기는 리치에 어그러지고 …

大倧教重光節

명일량처축하

대종교(大倧敎)의개교긔념일인 중광절(重光節)이곳음력정월십오일임으로 시내계동(桂洞)대종교진흥회(大倧敎振興會)에서는데십칠회 중광절을 축하하기위하야 명 하오두시에는 오례식(午禮式)을하오일곱시에는석례식(夕禮式)을 거행한다하며 경성(京城)방면에서는 박사래(朴思來)리홍도(李弘道)량씨의강도와 축하음악이 잇서 가극도여흥도잇다더라

五萬石의大小便

인천에서일년간

사만여호 인구 인천(仁川)부민이 일년에 버리는 대소변과 쓰레기(塵芥)를 처다거리하느라고드는 돈은을년도에는 이만팔천 일백이십팔원이엇고 래년도예정예산액은 이만구천 배구십삼원이어서 약일천오백원이 증가되엿는데이러케 만흔돈을 가지고 소제하야도 매일부민으로부터 소제해달라는 독촉이 심하여 …. 만의일이라 그런데대변과 소변의일년동안의분량을보면대변 만십일석이오 쓰레기가 삼백륙칠십삼천관이라는 …… 만한 수자를 나라내어 이는바이며 일부의배각에도역시불소하야 년년이 큰만원의 수입이 있다 더라(인천)

府內外에出沒하는 強盜二名逮捕

서대문서에서방금취됴중

고양군숭인면 신공덕리(高陽郡崇仁面新孔德里) 삼십이번디에 본적을두고 일뎡한 주소가업는 군석동면신광리(黃海道海州郡 …) 최모(崔某)와 황해도 해주 … 등두명은 … 서대문경찰서에 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괴칙모는 지난삼십이일사일에 서 만기출옥아되후 이래생활이 곤란하야 그달칠일에 시내주림동(中林洞)십이번디 김병문(金炳文)의 하숙옥에서 류숙하고잇든중 일즉이 친분이잇든김기류모와 강도를공모하고 그달이십오일

강도죄로 지난삼일시내 서대문경찰서에 데포취됴중이라는데 이제그내용을듯건대 …

남대문통 (南大門通)에서자신용(刺身用)단도두자루를 사가지고 이십칠일에 고양군룡강면창천리 (高陽郡龍江面倉前里)박모(朴某)의 던당포에침입하야 금은 귀중품날백사십여원어치를 강탈 도주한후 또이십팔일밤에 서대문 밧독립문(獨立門)부근에서 파주군 광탄면룡미리(坡州郡廣灘面 …)리장사박준수(朴俊秀)(三八)를 동이와 권긔단도로 구타협박하야 금관도 십사원이십오전을강탈하여가지고 전긔

김병문의 집으로도라가서 이십구일밤에 다시시내봉래뎡(蓬萊町)일뎡목칠십팔번디최준환(崔俊煥)의포목뎜에침입하야 기로 밈의하는것을 탐문하고지난이일에그와가티데포된것이라더라

朝鮮饑饉救濟會

京城府水標町四二(電、光、一三九九)

近古未曾有의 大饑饉은 三百萬의同胞를 餓死巷으로驅入한다 悲絕慘絕한이 現象을 救하라 濟하라 熱情으로 血淚로 金錢으로 物品으로！

後援

東亞日報社

時代日報社

朝鮮日報社

時局을標榜하고 金錢을強奪

범인한명데포

작년팔월 삼십일일 오후십일시경에 평남개천군외서면 중흥리 최국래(价川郡外西面中興里崔國來)의집에 엇던자두명드러와서 자긔들은 상해림시정부의 …

奇人奇緣 (101)

金源燮 譯 盧心汕 畫

九〇、진찰실 (二)

상호에게대하야는 너무나 심한 언도(言渡)이엇다

『그것은 대단히적히기가어렵슴니다…』

『적히실수가 업스면더말슴할것업슴니다』하고 영자는진찰을 다하고엿다는듯이 그것은 두말할것업시다시환자를 불은다고 하는것이엇다

상호는 황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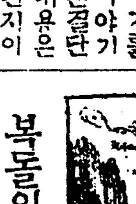
『아니 적히기가어렵더라도그 일을또말슴하여 주십시오』

머로회더이니 그다음에 주의할일

『틀새로는 귀신하는것입니다 락색우는것은 데일나븐일이고 아침에 눗잠을 자는것도안되는일입니다 그러고 달하기어려운

다가려는생각으로 가락이업것다 다만 악수라도하고 고잇슴으로 다시는 엇더케할도 리가 여차하면 단박에 둘어내리고 하 가지를 엄중히실행하십시오』 상호는 자긔엽헤하인이 만일 직업이 아닙니다 지금말슴한세 『의사라는것은 룻닥을말하는…』 『이러케 룻닥만할것이아니라 떠든얼굴에 미소를 뗘이며 시작하엿다 이제까지 시침을뚝 상호는 투구를벗고 항복하기 진찰을바다도 쓸데업슴니다』 을 꼭실행하시지 아니하면다시 세가지에대하야 내가 말슴한것 요 그러고다잡수시거든 또오십 시오 음식、쥐신 그러고 이약 『날마다 이약을 세번식 잡수세 『한상호』 너의는 회제를위서 내주며 『조항이누구시어요?』 치아니치못하엿다 상호는스스로패부한것을인정 『만일부슨일이 생겨서는안될 터이니 자네가엽헤잇게』 『속이어서라도잘어내가요?』 상호는아조련연스럽게 요덕거 녀의는 더한층나추한 소리로 『미천사람일닛가?』 리로 『아모도업는사람이 업시 이위 혐한환자를 내보내다니?』 하인은말업다는듯이조고만소 매하야 영자는 래어서 뛰어왓다 뛰어온하인을 보통에와 다른고로 그하인이 분 울리엇다 초인종을울리는 것이

童話 복돌의모험 (一)



넷날엇던곳에 가난한과부가 사럿슴니다 아들에게 옷한벌을 사서입힐수가업서서화로가에잇는재덤이속에 너코 재를덥혀주엇슴니다 그리는중에 간신히업소가죽을 한장살수가 잇섯슴으로 그것을입혀주엇더니 아들은 아주 조와서 장터로뛰여나갓슴니다

『복돌아! 너도나히벌서열아홉살이나 되엿스니 제밥버리는 하게되엿다 지금 부터는 좀일을 해보아라 자—색기 오래기를 가지고 뒤人산으로 가서나무나 좀해오너라』

그이튼날아츰에어머니는아들에게 이러케말해 들려주엇슴니다

복돌이는 선선하게 나갓슴니다 『어머니—알아듯겟슴니다』 복돌이가나무를하고잇스려닛가 별안간키가구척이나되는큰독갑이가나타나서복돌이를붓들어 이는뛰여붙더서서몸둥이를째자 날새이게 독갑이를 잡아눌르고

『너— 너를 인제죽이고말것이다』 지— 하고 귀도해본일이잇다 하고말햇슴니다 그랫더니 독갑이는

『제발목숨만 좀살려주십시요 그대신에 이몽둥이를 드릴터입니다 이것만잇스면 엇던전쟁에나가든지 결단코 지는일은업습니다』

독갑이가 아조백배사죄를함으로 복돌이는독갑이를바다가지고 다그리고그몽둥이를사해주엇습니다 쏫나무개비우에안저서가만가만 두드리면서 나무개비더러 『너의들모으기에 아조큰고생을하엿다이번에는너의가나를 집까지 다려다줄차레다』

하엿더니 나무개비는 산속에서 핑—핑 소리를내이며 집으로날러갓슴니다 나무개비가 다업서지니 복돌이는또뒤산에서일을당햇슴니다 이번에는더가락틀가진독갑이가 나온것을 얼는붓드러서 파리를 째아셧슴니다 그피리를불면 무엇이든지춤을추옵니다복돌이는 큰장작불을 춤추우면서 그우에안켜서집으로도라왓슴니다 그다음에맛난독갑이는머리셋가진 첨녀것이엇슴니다 그독갑이는 복돌이에게 초록빗기름병을 주엇슴니다 이것만가지고 잇스면몸에다지도아니하고칼에부어지지도안는중 한보배이엇슴니다 그독갑이는 복돌이에게합하야『가을제사가 잇기까지는그머를 괴롭게하지 아니할려이니 그때까지 네마음대로 나무를하여라』하엿다 합니다 복돌이는 커덕여가되면 언제든지 산보를하엿습니다 장려아이들은 복돌이가몽동이와 업소가죽입은것을보고 허통 내밀고

우섯슴니다 어느날 이런과가티 장터에나가니 붉은옷을입은 남자가이런말을하고지나갓슴니다 『임금님의 따님이 머단히실심해가지고 계십니다 일곱해동안한번도웃지아니하엿슴니다 그따님을세번만웃게하는사람이잇스면사위가된답니다』 이말을 듯고복돌이는 가마니속으로견심하엿습니다 복돌이는성문까지갓스나문직이가드려주지아니하엿습니다 라 조롱과욕을하야아조맛보넉수가되지안앗슴니다복돌이는 분이나서 벼락가티 문직이의면살을쥐어개울속에던지엇습니다 이번에는놀라서뛰여온여러사람들이단도를휘두르며덤벼드럿슴니다 그러나 복돌이는눈도깜짝하지아니하엿슴니다 가지고갓든몽둥이로 여러군졸을 몰동창속이나 돌구먹 및흥도로차버렷슴니다 필경여러군졸은 복돌의압헤업드려 그저죽용서 하여달라고사과하엿습니다

멍텅구리 련애생활 (59)

살림의론

(一) 두사람이 궁리타못하야 (二) 옥매에게 애걸간청한결과 (三) 반허락은 어든줄알앗더니 (四) 생각하는동안이 삼년이라고

『네 감사합니다』하고손을내밀엇다 그러나녀의는 그손을 못보는톄하고 『여보세요 여긔는자혜병원이 아님니다』 갈러이면 진찰료를내고 가라는말이엇다 『아 진찰료얼마입닛가?』 상호는 어데까지든지 구박을밧는가하야 불래지 안을수업섯다 『진찰료는 위험한 정도를딸아서 다름니다 그러고던병과 발광중이잇는 환자는 특별입니다 다만일 다른사람이 잇스면그 반액으로 두번을진찰합니다』 『진찰료는 이다음 올때에내겟슴니다』 『안됨니다 그것은원측(院則) 위반입니다』 자긔엽헤 하인이잇는 이상은 아모리 광인으로 취급을할지라도반항할수가 업섯다 너무나가 슴이쓰리어서 상호는 갑작히무엇을 생각한듯이 『아 좃소용히 말슴할일이잇는데 잠간동안 딴방으로……』 이번에는 하인이 엽쪽볼래엇다이러한 광인과 주인을딴방으로맛나게 하여서는될수업슬것가탓다 하인은 원주(院主) 를한번말아 보고는 자긔가초인종을울리어서 다음환자를 불러드리엇다 저말로상호는 가슴이벌넉벌넉하엿다 그는하는 수업시패원이란 비싼진찰료를 책상우에 쏘내노앗다 그러치안흐면 그하인에게 봉변을 할듯하엿다

?急 告?

貿易商諸位

朝鮮對岸에在한上海는世界를縮少하야다는都會로支那四億萬人口의偉大한消費力을背景으로널니世界의物貨를吸收하는同時에支那無盡藏의物産이集中되는世界的商業地입니다그럼으로列國의豪商은玆에集中하며公私法人은그聯絡機關과調査機關을玆에設置하야各各白熱的競爭을試하는바임니다 그런데獨特히國土相接하며衣食住와風習이殆히類似한我朝鮮의物貨가尙今販路를得치못하엿슴은그原因이一二에止치안는바第一은從來直接航路의便宜가업는것과調査機關의缺陷된所以입니다 幸히昨年度로부터朝鮮郵船의就航을見케됨으로그第一의原因은玆에解除되엿스나對上海貿易은尙今萎靡不振의狀態로豫期의成績을得치못한것이그主要한原因이販路에對한調査機關과我商品에對한紹介宣傳의機關이업는까닭이라안으면아니되겟슴니다 우리는항상此를遺憾으로思惟하는바幸히今般上海의有志와意見이一致한배잇서서左記機關을上海에設置케되엿스나此는다만上海에對한紹介宣傳과販路調査의一部使命을盡할뿐에不過하고朝鮮內地의物産을廣히網羅하야世界的商人의目前에提供하며또한此를收集하여市場에積置케되엿에는全혀我朝鮮內地에게신有力한諸氏의贊助努力을竢할뿐이오며玆에微衷을盡코자하는바多大한贊同을賜하시면 幸甚 幸甚

朝鮮物産館 朝鮮貿易調査所 中鮮商業協議所

住所 上海江西路八號

電話中央(一一九)(一一三〇)番

經理 田邊輝五郎

閔恩浦

李惟善

韓國鎭

徐成孝

董章鴻

華經理兼賣販 郭外筌

顧問 盛丕卿

朝鮮駐在總經理 方奎煥

住所京城府公平洞一番地

電話光化門一三五四番

職業

本業은土地의選近及男女兒孩의別업시自宅에서할수잇스며利益잇고有望한本業業好適製品買受함●本業內容書進呈希望者는業者로請求하시요大阪市外布施町

合資會社 都商會 電士二八六七

●當二月一日부터大公開

運動카네마三國作品의大寶傳을許可된朝鮮으로內容하야全部中止를不許하고말엇습니다여러분님은넘니理解하시고容恕하시옵소서大스꼬보는다社의超特作品이외다

母性愛大悲劇 涙의街 最長篇

米國과라마운트會社傑作 最後完結篇 난바-원 全十五卷第十三、十四、十五篇六卷上場

決死的大活劇 死의競爭 과라마운트社고스모보랑다提供

京城仁寺洞 朝鮮劇場 電光二〇一〇

自働車練習生募集

橫濱運轉士實任養成修業容易一月修入六關三月修九二關就職保證會학 詳細案內書二錢封入申込次第送 京城府岡崎町朝鮮自働車研究所

勿失好期할新製品!

今般本社에서新製造한海東木은優美하고堅固無比하오니需用諸氏는一次試用하심을仰望하압고特히男女學生又는婦人衣裳에適合한黑色及灰色을染하여化學作用으로洗濯及太陽에耐久不變色임으로써弊社의特色을實現하는同時에我邦特有의名產下에서信用과贊助를得코자하오니引續多數試用하심을仰望하나이다(地方注文迅速酬應함)

新案 ◎ 海東木 黑色灰色白色 周衣次一件一疋 (價格)貳圓七拾錢

瓦綠織 黑色灰色白色 周衣次一件一疋 (價格)四圓五拾錢

科目 毛織防寒周衣次외투감 黑色美灰色 一件 九圓

京城府漢芹洞九十四番地

▲ 海東染織社

米俱樂部 撤廢斷行?
當局態度强固

前年來의懸案이든京城의米俱樂部撤廢는漸次具體化되야總督府는最近仁川米豆取引所에通牒을發하야仲買店이스사로俱樂部를撤廢하기를勸告하야만일此가不可能한境遇에는當局이積極的으로撤廢케할模樣인데俱樂部의撤廢는理論上旣히議論의餘地가無하고다만從來의狀態上急激히整理하기가不能하얏스나昨年來嚴重한示達下에其廢止가豫告되얏슴으로今度는斷然撤廢케되리라더라

鐵道 側이承認한것이 滿鐵後店의三割八分餘으로

朝鮮鐵十七哩九分合計千四百八十七哩八分으로營業哩數一哩二分餘에運送業者一店인比例이다 그래서計算會社現加盟店은全南二百二十七店, 朝鐵三十三店, 京南四店, 全北十六店合計二百八十店이다 그런데同會社의最近締切計算인取扱實績을보면交計計算은請求金에對한合計算九割一分二厘後回計算同七割三分七厘, 非加盟店의被請求金店에對한計算이五割七分四厘의割合인데交計計算의成績이最良할에反하야後回計算이不良한것은資力이不充實하야正當한理由가업시計算不能으로보는外에他途가無하고非加盟店에對한計算이更히五割七分四厘가低下한것은資力이一層不充實함을證하는바이니現下朝鮮에在한運送業者中不健實한것이如何히多數이것을知함에足하겟더라

鮮銀券膨脹乎
日露條約成立과

朝鮮銀行券은昨秋以來漸次膨脹하야昨年末에는一億三千萬圓에達하얏고其後에回收한調이엿스나尙且一億七百萬圓臺를彷徨하는現狀이오今後도依然膨脹하야本年末에는一億四千萬圓外지達할豫想인데右는日露條約成立으로極東露國과의通商回復의結果同地方의資金關係에依한것으로鮮銀이日露國交斷絶以後도依然히

極東露國 에滯留한것은

最近에至하야唯一의成功으로正貨禁輸의厄에遭하야尙今도極東露國에一千萬圓의鮮銀券이流通되고소베트共和國은三종紙幣를發行하야相當한準備도잇고濫發의弊害도無히相當히信用이厚하나尙히極東에서는鮮銀券의信用에不及함으로鮮銀券은日露貿易의進展과共히膨脹하야今年末에는少하야도一億四千萬圓에達하리라고觀測되더라

預金利子協定은 嚴守되는中이다
劉川理財課長 談

京城組合銀行預金協定은其後鮮銀으로부터何等의申出이無한것으로보아嚴守되는것이라고思한바特히嚴重한違反制裁도設하얏슴으로協定이破裂될事는萬無하고又今回의協定은當座, 特別當座, 定期預金에對한것으로此外에對하야는別段의協定은無하고此以外現在에

多少問題

되는것은從來부터잇는것인데 例하면多額의日本預金에對하야今에更히多額의其利率引下를行할時는其流出念慮가有하리라又는各行共通으로此等問題에就하야는更히協議한時協定한事로되엿스나此는아즉協定이完全히成立되지안은模樣이다此를如何히決定할것인지는未定이나各行共通의問題로金融界로보면資金의流出을防止한다는點으로보아當然完全한協定을見할것이라云云

朝鮮滿洲間에 運送業者狀況
不健實者多數

朝鮮運輸計算會社는朝鮮內鐵道沿線及滿洲安東驛의區域에잇는一般運送業者中加盟店의委託을受하야非加盟店에對한運送取扱에關하야生한負借勘定을處理하는터인데同社의取扱現況에依하야朝鮮에잇는運送業界一部의狀況을窺할에加盟店數는交計計算加盟店百七十八店計四百八十一店과加盟店의請求金을取扱하는非加盟店七百九十六店을合計한一千二百七十七店에就하야計算을行하는中인故로十三道中

咸鏡線

을除한十二道에다

安東驛區域을加한鐵道沿線에在한二千二百七十七店의運送業이다 此를鐵道營業線數에對하야滿鐵本線千百四十八哩六分, 京義二百三十四哩六分, 京元百三十四哩六分, 全北輕鐵十七哩六分, 价川輕鐵二十三哩, 金

牛價騰貴
咸北地方
對露輸出期待乎

日露條約批准後의朝鮮對露貿易의伸展을얼마나期待하여야조흘는지는疑問이다同條約의成立이外交上으로一大局面轉回를與하얏고從하야間接으로經濟界를利하는外에直接利益은甚少할것이나咸北地方은國境을接하야經濟的의交涉도잇서서旣히

對露輸出

豫想으로生牛의市價가騰貴키始하야六十圓으로부터八九十圓을唱하는바此는目下同地方面의運材에盛히牛를使役하는것도一原因이나對露輸出의思惑買도牛價에크게影響되는바이니往年의對露生牛輸出의盛況을再次出現할與否는不明하나此가實現되면朝鮮內一般牛價도騰貴를未免하야自然日本移出에도影響이不無하리라더라

東拓監査課新設

久保田前總裁就任後內定한東拓本店의監査係를改昇하야新히監査課의一課를設할事는二日付로決定하야新課長에는元山支店長으로本店에轉任한佐方文次郞氏가任命되얏는데監査課는一般監査事務外에主히整理事務에當하리라더라

商議産業開發 資金調査

商業會議所에서는渡邊會頭大村書記長의請求에依하야總督府에出頭하야大體朝鮮産業資金所要金額을調査中이라더라

朝鮮銀行券 (六日)

發行高	一〇六、七七一、〇〇〇
正貨準備高	四〇、〇〇八、六八〇
保證準備高	六六、七六二、三二〇

日本銀行券 (六日)

發行高	一、三四四、七八〇 減 二一、四四八
準備高	一、〇五〇、〇〇〇 增減
限外	一
貸出高	三九、二五八 減 一二、〇五一

日本金利 (六日)

	東京	大阪
無條件	一六五 一七	一六〇
翌日拂	一九〇	一九〇
普通物	一三〇	一二六
月越	一六五	一六五

鐵珠板

▲한창財界好況時代에는 會社銀行의新設、增資等이 流行하더니近來에는會社銀行의合倂、減資가亦是大流行▲이것이어느程度를지나고 이번에는各銀行의減配가流行하얏고 最近에서 合倂、減資、減配等도할수업는境遇의處置手段으로 重役의實興減少ᄂ는新發明하얏다▲이實例는 日本銀行、正金銀行과如한特殊銀行에서減配를하면對外的으로不暇한關係가有함으로窮餘의一策으로이를取하리라고 減配株式이低落된다면賣興減額은 重役의資格低落이아닐外低級重役諸君의身勞도觀苦

期米
仁川期米第一報 (六日)

止價比較表

	昨後止	今後止	比較
當限	一	一	一
中限	一	一	一
先限	三四、八五	三四、五五	三〇低

前場反落

昨後場阪地三十八圓二十一錢의報와共히三十四圓八十五錢에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阪地初付三十八圓十三錢의反落을受하고卅四圓八十一錢에寄付한後阪地二節三十八圓系續인七圓九十一錢으로五節七十九錢인通節續落을伴하고六十一錢外지瓦落하더니阪地八節八十九錢인十丁反高와共히六十九錢으로跳返하야三番同事를告하엿스나結局阪地止價七十六錢의反落과共히五十五錢의最低로場을止하니高低의差가二十六丁이며阪仁의鞘는三百廿一丁이더라

縮鞘三百二十丁

客月의軟勢로納會된各地市場은餘勢가依然軟弱에固하야阪地는今朝三十七圓七十錢인最新低價를生하얏다그裡面을窺하면去十二限과一限의大渡米를行하든山田一派가又復聯線을延長하야賣方의先鋒으로綿絲의反落과共히猛烈를試할뿐더러三木及株式筋이또한隨應하는現狀이며當地는⑦筋이大賣物을擁하야少落도避色이업시陣容을整齊하는中이다그러나此의反面으로⑦筋의買氣가자못有力하야阪仁의鞘가三百二十餘丁인稀有의縮少를示하도록白旗를擧치아니할터인그背面에또한材料가潛在인듯도하다果然決勝은何時일가?

米豆餘話

▲昨日仁取仲買總會席上에는現下公定賣買의方式을過度期와如히連續賣買로變更하자는問題가생기엿섯다▲이問題에對하야는期米界에從事하는人士로는누구나할것업시한번考慮할必要가잇슬것이다▲昨年五月一日부터節賣買로實行할때의理由는賣買上弊害가多함을避하기爲하야此方式으로改良한것이다▲이제는엇더한理由에엇더한弊害가또한潛在하엿스며市場發展에엇더한阻害가잇는지? 다시連續賣買로變更하려함은참으로여러가지事情을綜合하야研究할일▲顧客本位로한다하면顧客의不平如何를들어滿足을與하는것이한理由일것이오▲또는賣買가零星하야各店의利益이少하다하더라도一種의理由가아니될것은아니다▲然而顧客對仲買店間에엇더한것이相當한理由가될지알흐로解決할이問題는매우興味잇슬模樣

前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一	一	三四、八一
二節	一	三四、五一	三四、七七
三節	一	三四、二〇	三四、六五
四節	三四、一〇	三四、四〇	三四、七二
五節	一	三四、四五	三四、六一
六節	一	三四、三九	三四、六九
七節	一	三四、四一	三四、六九
八節	一	三四、四〇	三四、六〇
九節	一	三四、三九	三四、六〇
十節	一	一	三四、五五

後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一	一	三四、五六
二節	一	三四、三三	三四、五五
三節	一	三四、三三	三四、五〇
四節	一	三四、二二	三四、五五
五節	一	一	三四、四〇
六節	一	一	三四、四〇
七節	一	三四、〇〇	三四、三一

取組高

當限	一五、一〇〇
中限	八、二〇〇
先限	三三、二〇〇
賣買石數	二九、八〇〇
本期總高	五、八五一、三〇〇

大阪期米 (六日)

前場		後場	
寄	三八、一三	寄	三八、〇八
一節	三八、〇五	一節	三七、九四
二節	三八、〇〇	二節	三七、八七
三節	三七、九一	三節	三七、七九
四節	三七、八〇	四節	三七、八三
五節	三七、七九	五節	三七、七二
六節	三七、八四	止	三七、七〇
七節	三七、八四		
八節	三七、八九		
九節	三七、七九		
十節	三七、七六		

東京期米 (六日)

前場		後場	
一節	三九、一四	一節	三九、〇三
二節	三九、一〇	二節	三九、〇〇
三節	三九、〇七	三節	三八、九九
四節	三九、〇一	四節	三八、九九
五節	三九、〇五	五節	三八、九五
六節	三九、〇九	六節	三八、九九
七節	三九、〇七	七節	三九、〇六
八節	三九、〇四	八節	一

各地期米比較 (六日)

	昨前止	今前付	比較
大阪	三八、二一	三八、一三	八低
兵庫	三八、一八	三八、一〇	八低
桑名	三七、二三	三七、一〇	一三低
下關	三八、〇八	三七、九〇	一八低
東京	三九、三五	三九、一四	二一低

株式
京取市場 (六日)
京取短期取引

株名	前付	前止	後付	後止
京取	三三、六〇	三三、四〇	三三、一〇	三三、一〇
仁取	八九、八〇	八九、四〇	八九、八〇	八九、八〇
仁新	二九、四〇	二九、一〇	一	二九、一〇
安取	一	一	一	一
鍾新	一〇六、五〇	一〇五、〇〇	一〇五、〇〇	一〇五、五〇
大新	八二、五〇	八二、一〇	八二、〇〇	八一、七〇

新價續落
前場一齊總低

(昨日終價와前場終價比較)

京取 四〇低 仁取 二〇低
大新 四〇低 仁新 四〇低
鍾新 五〇低

大新買方失色

八十三圓五十錢으로急跳返을告하야大引된氣先今朝는阪電續弱에付한後漸落되여八十二圓五十錢으로八十二圓四十錢의新價가잇슴은六十錢大引에當地買方은失色키를마지아니하얏는바一圓急落으로八十二圓

十錢新價에 大引되바 今年高價인 九十六圓 四十錢에比하면實로 十四圓三十錢의 反落

이엇슷스니或은此邊이大底일것가튼바今次의餘地업는崩落은別無材料이오阪地에서短期大新을中心으로名古屋側이라는風說이잇는小川商店이東新鍾新等에約二千枚의賣物을浴함에始하야政局掛念, 綿絲崩落等으로賣一方에傾한듯하나이程度는下押의度가相當하다할지니金融緩漫金利低를背景으로하야徐徐히玉整理를續行하면一段反撥이잇슬것갓다

鐘新續崩乎

現實로業績이好轉된一流紡績株特히鍾新等에는依然히買氣가潛在하얏스나綿絲界의實情은前途憂慮와買新腹인崩壓側의玉整理의必要를感하는一方

綿絲崩落과大新等의續落小川의賣物等으로崩落狀況을呈하는氣先今朝亦是 阪地는百六圓七十錢에大引되어初立會阪付價인百十八圓四十錢보다實로十一圓七十錢의下押이엿고當地는小口이나마投賣와賣叩로百七圓三十錢에大引되여上鞘이엇다

京取追伴而已

二十四圓臺는容易히蔽斷되지아니하리라는觀測이有力하엿스나昨後場에大新鍾新의新價續出로崩落에도追伴되지아니할수업서드디어四圓이엔여진氣先今朝亦化하야二十三圓六十錢初付後大新鍾新續落에人氣는繼續險惡

初立會價 三十一圓보다七圓九十錢의下押인二十三圓十錢新價가지잇다가四十錢에大引되엿는바二十三圓臺保持如何는單히大新次第로京取單獨으로는큰商內가업시今前場賣買도三百에不過하는賣弱한局面이엇다

仁取新舊不勢

昨後場에九十圓을恢復한仁取는今朝에又復八十九圓八十錢으로弱하얏고仁新은 三十一圓十錢 新價 에外지低落大引되엇섯다

前場諸株步調 (六日)

▲京取 三三六〇—三三六〇—三三五〇—三三四〇—三三四〇
▲仁取 八九八〇—
▲仁新 二九四〇—二九一〇—二九一〇—二九一〇
▲鍾新 一〇六五〇—一〇五〇〇—
▲大新 八二五〇—八二五〇—八二一〇—八二四〇—八二三〇
一〇—

波瀾激戰
後場先崩後返

(前場終價와後場終價比較)

京取 三〇低 仁新 一〇低
大新 六〇高 安取 二〇低
鍾新 八〇低

京取商內千餘

鍾新의大崩落과大新崩落에京取도定間의投賣와新田

大新大引反高

鍾新의大崩落에阪電續弱하야八十二圓十錢을呈하얏바八十一圓五十錢阪付電에當地는投賣와新規賣로混亂狀態를呈하야八十一圓二十錢의新價가잇다가阪地引返으로八十二圓七十錢에大引된바阪止는未着이엇다

鐘新百五圓臺

綿絲의依然崩落으로大底不知商狀을呈하야阪付가百四圓七十錢으로百四圓六十錢의低價外지잇다가大新引返으로當地는百六圓五十錢初付後漸弱하야百五圓의低價가잇슨後百六圓五十錢에大引되엇섯다

仁新二十九圓

仁新은三十圓十錢初付나二十九圓臺로八十錢에外지低落이다가三十圓에大引이엇다

의新規賣로餘地업시賣叫되어서三圓十錢二十二圓臺로滑下하야二十二圓四十錢의新價가잇슨後二十三圓十錢에引返大引이엇다

後場諸株步調

▲京取 三三一〇—三三〇〇—三二九〇
—三三〇〇—三三八〇—三二九〇—三三七〇
—三三五〇—三三八〇—三三七〇—三三八〇
—三三六〇—三三六〇—三三四〇—三三六〇
—三三七〇—三三三〇—三三二〇
▲仁新 三〇一〇—二九八〇—二九六〇—三〇〇〇
▲安取 九八〇—九八〇
▲鍾新 一〇六五〇—一〇五五〇—一〇四六〇—一〇六五〇
—一〇五〇—
▲大新 八二〇〇—八二九〇—八二五〇—八二四〇
八二五〇—八二四〇—八二三〇—八二五〇
八二三〇—八二七〇—八二六〇—八二七〇
八二〇〇—八二三〇—八二六〇—八二一〇
八三〇〇—八一〇—八二五〇

短期賣買高 (六日)

合計 四千三百三十枚
累計 十八萬三千五百九十枚

發行部數實노四百萬部

四六倍判 十六頁

二月号出來

호시家庭新聞의發行部數는四百萬部이다。日本全人口의十五分一되는人에게愛讀되는터이다。이一事로써보아도本紙가如何히多數한讀者를有한지를알수가잇다。定價近近參錢이며이처럼滋味잇는有益讀物은日本에서처음일것이다。

ホシ家庭新聞

호시

評論이잇고、說苑이잇고、寫眞이잇고、漫畫가잇고、其他趣味欄婦人欄、小兒欄、衛生欄等、社會各方面에亘한記事를網羅하엿슴은勿論이며、諸名士의硏究、訓話、偉人傳等、無非常識을爲主한記事로全紙面을덥헛다。

常識本位의 親切한 編輯

定價 金參錢

- ◇事業의兩面……マスター 星 一
- ◇海外望遠鏡……◇人力의節約……◇農夫와無花……ナプアーツ
- ◇世界偉人傳……◇窓과日光……◇世界一비교……
- ◇獨逸大統領 본을……◇작란감敎育……◇家庭의自動車王
- ◇季節로본結婚……◇一人一言……
- ◇虛費업는生活……星製藥商業學校主事 原 稜威雄
- ◇익크?……醫學博士 豊島豊次郞
- ◇母親은先生……◇不良少年의環境……◇食物의經濟……
- ◇色의검은분의化粧法……◇只今의옛이약이……◇龜甲縞……
- ◇無言비교……◇漫畫「梅見」……◇寫眞폐지……
- ◇어린이欄……◇其他、色々……
- ◇皮膚의手當……醫學博士 赤津誠內

東京大崎 ホシ家庭新聞社

◈全國의호시特約店에서購求하여주시옵◈